

2013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 호조별 동편 마을 -

2013. 12

시흥문화원

목 차

1. 조사개요	1
2. 구술조사	4
3. 수집자료	57
4. 마을사진	87
5. 현장조사일지	97

1. 조 사 개 요

1) 조사의 목적과 취지

오늘날의 시흥시는 대규모 보금자리 건설사업과 교통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해 시 전역이 공사현장을 방불케 한다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자연마을의 형태를 잃어버린 곳이 다수 존재하며, 향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도 있다.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 연구는 시흥시 지역의 자연마을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함으로써 자연마을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점차 사라져 가는 자연마을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경험들에 대한 유·무형의 자료를 보존할 목적으로 작년(복음자리, 한독마을, 목화마을)에 이어 올해 2년차를 맞게 되었다.

동네의 사건과 이웃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일이었던 과거와 달리,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과 개인은 파편화되고, 자연마을 단위의 공동체 해체 역시 이미 피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자연마을 단위의 구술조사와 자료수집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주민들의 일상과 생활에 관한 이야기”이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빠르게 변해가는 자연마을의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기억을 붙들어 두고, 그를 통해 지역단위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후세들과 공유하는 것이 본 조사의 취지이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구술자료 및 수집자료 등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어진 기초 자료로서, 본 조사내용을 토대로 내용 검토 및 편집, 보충 조사 등 보완 작업을 거쳐 2014년, 별도의 단행본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2) 조사 기간

이 조사사업은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3) 조사 범위

현재 시흥시에는 이미 자연마을의 형태를 잃어버린 곳이 다수 존재하며, 향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도 있다. 이번 조사사업은 시 중앙부에 위치한 호조별 동편의 자연마을들 즉,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그리고 물왕동 일부 지역에 편제되어 있는 자연마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안현동의 가대말, 길마재, 양지편, 장락동과 매화동의 매채기, 바티골, 샛터말, 섬말, 도창동의 강창리와 도두머리, 점말, 금이동의 도리재, 서낭대, 거멸, 진말, 그리고 물왕동의 월미 등의 자연마을이 이에 해당한다.

호조별은 조선 경종 원년(1721) 호조의 소속기관인 진휼청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른 바 ‘호조방죽’ 축조 결과 만들어진 시흥시 지역 유일의 평야지대이다. 조선시대 인천과 안산의 경계지역에 해당했던 이 지역은 갯골을 따라 북쪽으로는 안현동 일원, 남쪽으로는 물왕동 일원까지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이다. 호조별의 조성으로 인하여 어업과 밭농사를 위주로 하였을 지역 주민 생업환경에 본격적인 ‘벼농사’라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며, 현재는 매화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산단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굵직한 자연 경관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4) 조사 방법

조사는 시흥시 향토사료실의 기획과 시흥문화원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시흥시의 지역사 연구동아리인 시흥역사문화연구회 ‘흔개’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조사자로 참여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영숙(사진작가, 칼럼니스트, 흔개 회원)

박종남(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칼럼니스트, 흔개 회원)

하영선(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유서원(문화공작소 도토리 대표, 흔개 회원)

조사자들은 조사대상 마을별로 현장 답사를 진행하며, 마을사진을 촬영하고, 마을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현지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탐색,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초기부터 사진자료나 기록자료의 수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구술자를 늘려 한계를 또한 호조별 동편 마을들에 기반을 두고 활발한 지역문화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기린, 동네문화놀이터 '툼'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시흥시 관내에서 비교적 입향 시기가 뚜렷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전근대 가승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근현대의 마을 현황과 지역문화 활동가들의 면모 역시 지역 문화의 단면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매화교회에서 발간한 매화신문의 경우, 창간호부터 제121호까지 약 10년간의 자료를 입수하여 호조별 동편마을 지역사 정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된 문서자료와 사진자료는 2014년 단행본 출간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거나, 스캔작업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향토자료실로 이관하였다. 또 구술 조사 시 비디오 녹화를 실시한 경우, 녹화된 영상 자료 등도 향토자료실로 이관하였다.

5) 기대 효과

자연마을의 점차적인 소멸은 도시 개발의 활력에 감추어진 이면이다. 마을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마을을 기억하고 있지만, 급속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자연마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흔적은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 사라져가는 자연마을에 대한 미시적 조사는 시사 편찬과 같은 (상대적인) 거시사 체제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다루기 어려웠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마을 단위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동체적 가치의 보전과 계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구 술 조 사

1) 강춘영

- ▣ 성 별 : 여
- ▣ 거주지 : 매화동 예림빌라

강춘영 씨는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1992년에 시동생이 매화동에 집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시흥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매화동에 들어 올 당시에는 집들이 대부분 연탄보일러였으나 강춘영 씨가 이주해 올 무렵 기름보일러로 교체되었고 지금은 대부분 가스보일러이다.

매화동은 시흥 내에서도 외파로 딱 떨어져 있어 특히 교통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여가 생활권이나 문화적 환경이 열악했다. 그 당시에는 개봉역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있었고, 부천을 경유하는 38번 버스와 서울 쪽을 경유하는 39번 버스가 있었으나, 백화점이나 마트,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다니던 시대였는데 부천에서 오는 백화점 셔틀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다. 매화동 안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두 아이 모두 신천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고 강춘영 씨가 직장 생활을 했으므로 큰아이, 둘째아이 모두 3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냈다. 강춘영 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뒤늦게 방송통신대를 다니기 시작해서 2002년도에 졸업했고, 아이들이 다녔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학원으로 전환되면서 그 학원에 취업했다. 현재는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한 지 3년 정도 되었다.

큰 아들은 21세인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매화동에 초등학교가 없어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도창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2003년 매화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매화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고, 중·고등학교가 아직 개교 전이어서 소래중학교로 진학했다. 후에 매화 중학교가 생기고 다시 몇 년 뒤에 매화고등학교가 개교했지만, 한동안 학부모들 사이에서 매화 중·고등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현재까지도 ‘매화동 밖으로 나가야 한다’, ‘여전히 실력 차이가 난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긴

하나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 매화 중·고등학교가 혁신 학교로 지정되면서 불신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매화동에 92년도에 들어와 21년 살면서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생활환경이나, 여가시설들이 좋아져서 인구 유입이 많아진다면 오래도록 정착하고 싶다고 한다. 여전히, 주차난도 심각하고 아이들 학원문제도 있고 영화관이라도 가려면 대야동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공기가 맑다는 것과 큰 범죄가 없다는 것으로 상쇄시키고 싶다고 한다. 특히, 매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물론 아직 찬반 의견이 맞서 있지만) 편의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매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반응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2011년에 희망씨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일반 주민으로 살 때는 관심이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통장 일을 맡아 보면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호조별 축제가 열릴 때마다 봉사자로 나서서 열심히 봉사 하고 있다. 호조별 축제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이 어렵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없으면 지속 가능성이 쉽지 않은 매화동만의 특별한 축제다. 통장이 되면 전 통장님으로부터 마이크와 화성기를 건네 받는다. 집에서 마이크로 마을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호조별 축제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2) 김수경

- ▣ 성 별 : 남
- ▣ 나 이 : 1946년생
- ▣ 거주지 : 도리재

김수경 씨는 10대째 터를 잡고 살아온 금이동 도리재 마을에서 태어났다. 도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인천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교육열이 높으셨던 아버지께서는 계룡산에서 도사님을 모셔와 한문 개인 과외

를 붙여 주셨다. 도창초등학교는 거멀마을을 통과해서 걸어 다녔는데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 남산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마을 친구들과 겨울에는 딱지치기, 대구치기를 하고 여름에는 물왕저수지나 도창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며 놀기도 하고, 정월 대보름이면 월미 마을 아이들과 쥐불놀이 싸움을 했다. 김수경 씨의 부친은 일반 농사와 함께 가시오이 농사를 많이 지으셨다.

마을에는 공동 우물이 3개 있었다. 집에 개인 우물(두레박 후에 펌프)이 있었으나 마을 공동 우물 물맛이 좋아서 주로 샘물이라 불리는 우물물을 가져다 먹었으며, 지금도 그 우물은(마을 중심 교회 위) 폐정되지 않고 호스를 연결해 놓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복숭아와 오이를 많이 재배한다고 해서 ‘도리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마을에는 6.25 전후로 약 48가구 정도가 모여 살았다. 6.25가 터지자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화성으로 피난을 떠나셨는데 김수경 씨는 아버지 등에 업혀서 피난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도리재 마을에는 정자나무(느티나무) 라고 불리던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6.25때 폭격 맞아서 다 죽고 지금은 5그루만 남아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사람 허리에 해당되는 지점에 나무를 심어 마을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심었다는 설이 있다.

60년대 중반에 초가집 이었던 지붕을 개량하였다. 도리재 마을 주민들은 63~64년 정도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방산동은 70년대부터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 젓소 키우는 집도 7~8가구 정도 있었으나 대규모 목장은 아니었고 대부분 10마리 이하로 키우는 정도였다. 생활권이 안양이어서 주로 안양 중앙시장이나 구시장으로 다녔고, 소나 가축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신천리 뱀내장이나 도일시장으로 다녔다.

도리재 마을에는 소신여객 운수업을 했던 신현순 씨의 아들 신도철 씨에 대한 공덕비가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세워져 있다. 도리재는 인근 마을에 비해 배움과 새마을 사업이 빠르게 시작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캐나다 유니테리안 한국사회복지관 소속으로 활동했던 신도철 씨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 50년대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흥원’이라는 야학을 운영하고 60년대 초 부터는 복지유치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모든 재원을 신도철 씨가 지원했다. 그 당시 김수경 씨도 야학에서 학생들에게 국어와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이 마을은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사업 이전에 신도철 씨에 의해 마을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복지상회’라는 마을 공동 슈퍼마켓 형태의 가게가 4곳이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이 기금이 유지되고 있다. 신도철 씨가 마을 창고를 짓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사 주었다. 이 토지는 현재 새마을 복지회 소유이다. 새마을 복지회 회원은 당시 도리재 마을에 거주했던 주민이 모두 대상이 되었으며, 회원이었던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승계해서 지금은 회원이 23명 정도이다.

도리재에는 얼마 전 까지 두레패가 있어 월미 마을과 깃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적사 대회를 열어 마을의 화합을 다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2년에 한번 고향의 날을 정해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도 놀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하고 있다. 현재 도리재는 원주민이 10가구 정도 살고 있고 임대형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서 마을 분위기가 삭막해 진 듯하다. 그 점이 많이 안타깝다.

3) 방종헌

- ▣ 성 별 : 남
- ▣ 나 이 : 62세
- ▣ 거주지 : 금이동 거멀

방종헌 씨는 온양 방씨 37대 손으로 24대부터 살기 시작한 금이동 거멀 마을에서 태어났다. 도창초등학교 18회 졸업생으로 학교는 마을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에 위치해 있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은 ‘애기능’까지 가기도 하고 운흥산으로 가기도 했다. 차들이 많지 않을 때라 주로 소풍은 걸어서 갔고, 운흥산은 도리재 뒷길을 이용해서 다니기도 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운흥산으로 포탄 파편을 주우러 다니기도 하고 도창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며 놀기도 했는데, 도창저수지에서는 간간히 익사 사고가 나기도 했다.

도창저수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거멀 마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일본 사람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빼앗다시피

수탈해 갔다. 도창저수지에는 고기들이 많았는데, 특히 가물치가 많아서 대나무 낚싯대로 고기를 잡기도 했다. 도창리 사람들은 주낙을 사용해 고기를 잡았다. 또 저수지에 놀러온 외지인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일도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래중학교로 진학했는데,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다니기도 했다. 그 당시 수원~인천 간 대안버스 비가 5환이었다. 때때로 그 버스비가 아까워 걸어서 학교에 가고 그 차비로 주전부리를 하기도 했으며 학교를 걸어 갈 때는 친구들과 큰 길로 쪽 줄을 서서 걸어가면서 장난도 치고 신나게 놀면서 다녔다. 때로는 이웃 마을끼리 서로 텃세를 부리는 일도 있어서 소래중학교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오다가 다른 마을 아이들과 시비가 붙은 적도 있었다. 거멀 마을은 온양 방씨 집성촌으로 마을의 70% 정도가 방씨이고, 그 외 이씨, 강씨 등이 살고 있었는데, 현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태이다. 금이동과 거멀 마을 지명 유래는 거멀은 거머리가 많다고 해서 붙여졌고 금이동은 쇠금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붙였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방종현 씨는 기억한다. 예전에는 안양이 거멀의 생활권이었지만 현재는 신천동으로 생활권이 바뀌었다. 방종현 씨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도로가 없었고 소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만 있었다.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자 그 당시 이장이었던 윤광렬 씨가 도에서 예산을 받아 마을 주민 집집마다 5m~10m 정도씩 사방책임을 주어서 배정해 주면 마을 주민들은 산에 가서 돌을 주어다 책임 받은 곳에 채워 넣고 밀가루를 배급 받았다. 현재 도로는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26번 버스가 3~4년 전부터 다니고 있지만 그 전에는 마을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 금이 사거리까지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농사짓는 일 외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어른들은 논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무시로 쳐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마을의 포도 농사는 80년부터 시작했고 축산업은 80년대 두 가구 정도가 하다가 나중에는 주민 60% 정도가 축산을 하기도 했다. 이원오 씨는 상근 목장이라는 축산업을 크게 했다. 젖소 뿐만 아니라 한우도 100 여 마리 키우다가 2012년부터 많이 줄였고 여전히 두 가구 정도가 한우를 키우고 있을 뿐이다.

마을에는 공동 우물이 윗말, 아랫말, 건너말에 각각 하나씩 있었지만 따로

부르는 명칭은 없었다. 방중헌 씨가 군인에 가기 전(19~20살 때) 대학생 자원 봉사자를 받아서 운흥산에서 수도를 끌어와 집집마다 간이 상수도를 들였다. 현재 상여독은 강창이 마을에 있는 상여독을 사용하고 있고 거멸마을 상여독은 오래되고 보기 흉해서 15년 전 정도에 철거해 버리고 물건들은 컨테이너에 보관해 오다가 2012년에 불태워서 정리했다. 또 마을에 당산 나무가 있어 2년에 한 번씩 당고사를 지냈는데 간벌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실수로 당산 나무를 베어버려 현재는 나무가 있었던 자리에서 2년에 한번씩 10월 3일 날 당고사를 지내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이 대부분 '문전옥답'이었는데 논밭을 매립하기 시작했다. 70년대 당시 그린벨트가 아니면 소나 돼지를 기를 수 없다는 소리에 거멸 마을 주민들은 자청해서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지금은 그린벨트가 많이 풀리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 많다. 80년대 초에 마을에서 구판장을 만들어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주민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현재 원주민 27가구가 살고 있다. 가구 수는 줄었지만 창고형 공장으로 인해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4) 신세철

- ▣ 성 별 : 남
- ▣ 나 이 : 82세(1933년생)
- ▣ 거주지 : 금이동 도리재

신세철 씨는 평산 신씨가 13대째 살고 있는 금이동 도리재에서 태어났다.

도창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래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때 도창초등학교가 개교하자 도창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해방이 되었다. 해방 이후 6학년들만 다시 소래초등학교에 가서 23회 졸업생이 되었다. 당시의 5학년들이 도창초등학교 1회 졸업생들이다. 소래초등학교는 걸어 다녔는데 지름길이 없어 큰 길로 2시간 정도씩 걸어 다녔다. 버스가 더러 다니기는 했지만 목탄차가 자주 지나 다녔기에 목탄차 뒤에 얻어 타고 다니다가 차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했다. 소풍을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소래산에 올라가서 인천~서울 방면을 내려다보면서 지나가는 차 숫자를 세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고 학교를 오가면서 뱀내장터를 구경하기도 했다.

중·고등학교는 안양으로 다녔는데 역시 8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 중학교 3학년 때 6.25가 터졌는데 그때 신도철 씨와 함께 경찰시험에 합격했다. 경찰 학교를 졸업하고 2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 평양 진남포 제철 공장으로 가서 그곳 치안을 담당했으나 후퇴하여 다시 내려 왔다. 당시 부천군 소래면 도리재였으나 후에 시흥군 소래읍으로 편입된 도리재 마을은 처음에는 오씨가 자리를 잡고 세를 이루었고 나중에 평산 신씨와 김씨가 들어와 세를 이루었다. 현재는 평산 신씨와 김씨가 살고 있다.

신세철 씨 부모님은 벼농사를 주로 하였고, 벼리콩, 조, 면화(목화)를 키웠다. 특수 작물이나 과일 나무를 키우지는 않았지만, 집집마다 울타리에 살구나무와 참죽나무가 있었고 현재도 참죽나무는 집집에 더러 있다. 후에는 벼농사 외에도 가시오이, 참외 등을 노지 재배하기도 했다.

마을에 공동 우물이 큰 우물이 2개가 있었고 노인정 앞 공장 앞에 있는 우물은 현재도 사용이 가능 하다. 이 마을은 6.25때 가물었을 때 빼고는 특별히 물이 귀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상여독은 도리재만의 단독 상여독이 있었다. 예전에 마을의 가구 수가 60여 가구가 있었고 푸줏간이 있었을 때는 80여 가구가 모여 살았었다. 그 당시에는 동네 입구에 주막이 있어서 동네 입구를 ‘주막골’이라 부르기도 했다. 마을 자체적으로 지내는 당고사는 없지만 집집마다 가정 신앙은 있었다.

마을에 연매간(연자방아)이 2개나 있었다. 간이 상수도 탱크 있는 곳에 돌로 만들어진 연매간이 더 오래 되었고, 느티나무 위쪽 옛 마을회관보다 더 위에 있던 연매간은 시멘트로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도리재 마을에도 방앗간(정미소)이 생겼는데 큰 우물이 있었던 곳에 있었고 발전기는 손으로 돌려야 했다. 40년 전에 없어진 도리재 방앗간은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생겼다가 전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없어졌다. 거멀하고 도리재 협동 방앗간이 새로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도리재 방앗간은 없어진 것이다. 마을 주변에 큰 길은 없었고 대부분 마차길이었는데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시작 되면서 길이 넓어지고 도로 포장도 많이 되었다. 전기는 1974년 무렵에 들어왔다. 새마을 운

동 이후에 거멸 ⇒ 도리재 ⇒ 월미 ⇒ 물왕 순으로 차례로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는 10년 정도 후에 들어 왔다.

신세철씨 는 그 당시 이장을 맡아 보았는데, 그때는 버스 있기는 했지만 도로는 아직 포장도 되지 않은 비포장 길이었다. 나중에 수인산업도로를 깔 때는 부역을 많이 했다. 동네마다 구역을 정해 책임을 주고 도로를 깔게 했는데, 낮에는 농사도 짓고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같이 일어나 나가서 도로 까는 일을 하고 오기도 했다. 고속도로 옆 버스 정류장 바로 뒤 갑바산 있는 곳에 ‘아니다 공업사’라는 이름의 광산이 있었다. 백토(타일 만드는 원료)를 캐는 광산이었는데 그 당시 일반적인 품값이 200원이었다면 ‘아니다 공업사’ 광산은 품값이 300원이었다. 그런데 70년대 초반에 광산 사업이 잘 안되어서인지 봉급도 나오지 않고 서서히 문을 닫았다.

현재 도리재 마을에는 원주민 10여 가구가 살고 있고 대부분은 임대형 공장이 들어섰다.

▶ 신세철 씨 기억 속의 ‘소신여객’

신현순 씨는 평산 신씨 11대로 신세철 씨에게는 할아버지 뻘이 된다. 신현순 씨의 형님은 진사를 지내셨고, 그 윗대조가 인제 군수를 지내셨는데 인제 군수의 유산을 받은 신현순 씨는 당시 신천리에 거주하고 있었고, 신천리~소사 사이를 오가는 소신여객 운수업을 시작했다.

그 당시 신현순 씨 집안의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말해 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황새가 논에 앉으면 그 황새를 쫓으면서 하는 말이 ‘힘들게 쫓으면 뭐하나, 어차피 우리 논에 앉을 것일’이라는 말을 할 정도의 재산가 집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현순 씨가 소신여객 운수업을 하면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소신여객을 하면서 집안 재산을 탕진한 것이라고 한다. 아는 사람들은 소신여객 버스가 지나가면 그 버스를 보면서 ‘신현순 씨 재산 한쪽이 또 없어지는구나’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버스비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지 버스를 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버스는 텅 빈 채로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 적자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신세철 씨가 기억하는 ‘자흥원’

신도철 씨는 6.25 때 경찰 생활을 하고 밤에는 도리재에서 야학(자흥원)을 열어 근동에 학생들을 모아 한문, 영어 과목을 가르쳤다. 그 때는 뚜렷한 장소가 없어 현재 배수지가 있는 꼭대기 정수장 있는 곳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 움막을 지어 놓고 야학을 운영했다. 또 신도철 씨는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단 마포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도리재에 구호 물자를 많이 내려 보내 주었다. 그때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야학에 학생들이 많았다. 월미나 물왕리는 군도 면도 틀렸지만 전부 도리재 야학으로 모였다. 신세철 씨도 자흥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다.

60년대 초반에는 복지 유치원(유아원)도 생겼는데, 현재 53~54살 된 사람들이 그 복지 유치원에 다녔던 세대들이다. 신도철 씨가 트럭으로 구호 물자를 내려 보내면 4개 마을에 골고루 나누어 줬다. 분유는 복지 유치원 아이들만 먹이고 옷과 보리쌀은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신도철 씨의 도움으로 서울 유니테리안에서 보조를 받아 유치원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 때 당시 신천감리교회도 도리재 복지유치원을 벤치마킹해 가기도 했다. 오전에는 유치원에 여자 선생님을 두고 유치원을, 밤에는 야학을 운영했다. 또 마을 공동 가게인 복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현재 동네 땅 중에 도리재 마을 공동 소유 땅이 164평이나 있어 시흥시 내에서 부자 동네로 손꼽을 수 있다.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신도철 씨의 공덕비가 세워졌다.

5) 백승직

- ▣ 성 별 : 남
- ▣ 나 이 : 84세(1935년생)
- ▣ 거주지 : 매화동 도두머리

도두머리는 아랫말, 가운데말, 동쪽말 3개의 마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백승직 씨는 수원 백씨 휴암공파 14대손으로 아랫말 제일 끝 집에서 태어났다. 소래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대로 다녔으면 소래 초등학교 26회 졸업생이

되었겠지만, 도창초등학교 2회 졸업생이 되었다. 소래초등학교 3학년을 다닐 때 해방이 되고, 도창초등학교 인가가 나서 금이리, 매화리, 무지리, 도창리, 4개리 마을 학생들은 모두 도창초등학교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했다. 양손에 무게가 다른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 재기라든지 하는 지능검사를 했는데, 백승직 씨는 소래초등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졌었다고 한다. 그래서 무지리에 있는 소성공민학교에 1년을 다니다가 소래초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다. 소래초등학교 다닐 때 일본어를 할 줄 몰랐는데 낙제도 시키지 않았었다. 아마 백승직 씨의 큰아버지가 당시 소래면 직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래초등학교 다닐 때는 신작로(수인산업도로)를 쭉 따라 걸어 다녔는데 일제강점기라 혼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마을별로 모여서 고학년 반장의 인솔 하에 줄을 서서 학교를 갔고, 집에 올 때도 학년 별로 모여서 줄을 서서 집으로 돌아 왔다고 한다. 당시에나 나머지 공부가 있었는데, 백승직 씨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서 자주 나머지 공부를 하곤 했다고 한다. 학교에 월사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가다 친구들 꺾에 빠져 월사금을 화투 비슷한 도박에 모두 잃고 선생님께 붙들려 혼나기도 했단다.

중학교는 서울로 유학을 갔다. 남영동 성남극장 뒤에서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때 6.25가 터지자 안 되겠다 싶어 걸어 걸어 도두머리로 돌아 와서는 곧 피난길에 올랐다고 한다. 그 당시 어른들 사이에서는 절대 피난처 10승지가 있었는데 공주군 유구면이 그 중 한 곳이어서 소를 끌고 이불 보따리를 등에 짊어지고 피난을 가서 보름 있다가 다시 예산으로 가서 열흘 정도 있다가 도두머리로 돌아왔는데, 그 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백승직 씨는 서울대학교 농과대를 졸업했다. 그 당시는 대학교를 간 사람이 드물던 시대였는데, 백승직 씨 뿐만 아니라 본가 형제들, 외가 형제들도 대부분 서울대를 졸업했다. 집안이 머리가 좋았기도 했고, 집안에 재력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고 백승직 씨는 생각한다.

60년,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부흥부(지금의 건설부)에서 지역사회 개발요원을 모집하자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 3~4개월 훈련을 마친 후 강원도 양구에 가서 근무를 했다. 처음에는 부흥부 소관으로 국가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농림부 소속 농촌 진흥원 소속이 되

었다. 다시 1~2년이 지나 강원도 지방 공무원으로 소속이 바뀌자, 5년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도두머리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바로 농지개량조합(홍안수리조합)에 입사해 17년 동안 근무했다. 부천~안양 가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했는데 버스가 복잡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수인산업도로가 있었으나 포장은 안된 상태였다. 1977년, 도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큰 홍수가 났다. 그래서 안양으로, 시흥으로 계속 출장을 다니는데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17년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아 우편으로 재차 사표를 내고서야 겨우 퇴직할 수 있었다.

도두머리가 처음부터 수원 백씨 집성촌은 아니었다. 경주 김씨가 가장 먼저 세거 했고, 밀양 박씨, 김해 김씨, 마지막으로 수원 백씨가 들어 왔다. 수원 백씨 집안은 원래 광명시 일직리에서 세거하고 있었는데 5대조 할머니가 도두머리 경주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다. 일직리의 수리시설이 좋지 않아 곡식이 많지 않았는데 도두머리는 별이 있어 먹을거리가 조금 더 여유 있는 딸네를 자주 찾아 왔다고 하는데, 아들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오다 보니 도두머리 김해 김씨가 그 아들을 사위로 삼았다. 도두머리 경주 김씨, 김해 김씨, 수원 백씨는 인척 관계로 엮여 있다.

백승직 씨가 알고 있는 도두머리 지명의 유래는 사실 어원이 썩 좋지 않다. 예전에는 호조별을 경계로 해서 바닷물이 들어 올 때 강창리나 하상동 등은 배로 들어 다녔다 한다, 강창리는 강 건너에 창고가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수산물을 강창리 창고에 놓았다가 서울로 옮겨 가고는 해서 강창리에는 도둑이 많았다. 도두머리는 그 도둑 두목이 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원이 좋지 않아 도창리(현재 에이스 아파트 있는 쪽)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동네 머리 위로 나 있다는 이유를 붙여 굳이 도두머리 어원으로 갖다 붙인 것이다. 현재 백승직 씨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곳은 ‘샘골’이라 불린다.

6) 윤영진

- ▣ 성 별 : 남
- ▣ 나 이 : 67세
- ▣ 거주지 : 매화동 매채기

윤영진 씨는 선대가 쪽 살아오신 매채기에서 태어났다. 도창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옛날부터 도두머리로 가서 에이스 아파트 앞으로 질러가는 산길로 걸어서 학교에 다녔다. 매화동은 땅의 모양이 매화꽃 형태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고 있다. 매화교회 뒷동산 쪽은 매화 2리, 매화교회 뒷동산 뒤 함씨네가 살고 있는 쪽은 매화 1리인데, 새터말, 또는 사탄 말로 불리고 있다.

7) 이보영

- ▣ 성 별 : 남
- ▣ 나 이 : 75세
- ▣ 거주지 : 금이동 거멀

이보영 씨는 덕수 이씨로 거멀에서 태어나 평생을 거멀에서 살아왔다.

마을에는 우물이 네 군데 있었고 15년 전에 없어진 상여독이 이보영 씨 밭에 있었다. 도창초등학교 5회 졸업생으로 원래 3학년까지는 무지리에 있는 소성고등공민학교 다니다가 도창초등학교가 개교하자 전학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은 운흥산으로 다녔다. 어렸을 때 마을에는 보리농사, 논농사, 고추농사, 포도농사를 지었다.

그 외에는 기억나는 일이 별로 없다.

8) 정일용

- ▣ 성 별 : 남
- ▣ 나 이 : 57세
- ▣ 거주지 : 매화동 도두머리

정일용 씨는 원래 광명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았으나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19년 전에 도두머리로 들어와 정착했다. 도두머리에 요양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기나 환경이 좋아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요양 목적으로 많이 와서 살았다고 한다. 정일용 씨 부인은 현재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도두머리 지명 유래는 배가 도두머리 앞까지 드나드는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다. 정일용 씨는 배가 들어 다니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물이 저 앞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보았다고 한다.

9) 안성옥

- ▣ 성 별 : 여
- ▣ 나 이 : 85세
- ▣ 거주지 : 매화동

안성옥 씨는 안산 달월(월곶)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가 19살에 중매로 매채기 경주 이씨 집으로 시집 왔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그 당시 시집 올 때의 그 집이다. 안성옥 씨가 알기로는 집이 지어진지 60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농사를 25마지기 정도 짓다가 지금은 7마지기만 짓고 있다. 예전에는 생활권이 안양이어서 안양 남부시장, 중앙시장에 다녔고 후에는 신천리 시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마을 공동 우물이 안성옥 씨 집안 마당 끝에 있다 매채기에는 공동 우물이 4개가 있었는데, 동쪽 우물이 가장 물 맛이 좋고, 가운데 우물은 조금 짭

절한 맛이 났다고 기억한다.

10) 조취건

- ▣ 성 별 : 남
- ▣ 나 이 : 55세
- ▣ 거주지 : 매화동

조취건 씨는 부모님 때부터 살아온 매채기에서 태어났다. 소래중학교 다닐 때 버스가 2시간에 한 대씩 다녔기 때문에 버스비로 20원 주고 ‘자야’ 사먹고 ‘라면땅’ 사먹으면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 소래, 계수, 도창, 포리에서 학생들이 소래중학교로 많이 왔다. 그 중 도창에서 일부가 성택중학교로 가기도 했다. 고등학교는 인천고에 입학 하았는데,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 인천으로 유학을 할 수 없어서 통학을 하다가 도저히 교통편이 힘들어 인천고를 포기하고 다시 부천으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수인산업도로 포장은 고등학교 2~3학년 다닐 때 76년 정도에 포장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다. 현재 주민센터 주말 농장 옆 수로에서 친구들과 수영하며 놀고 고기를 잡기도 했다. 예전에는 이곳이 바닷가여서 어른들은 고기잡이도 나가고 염전에서 소금을 지게에 받아서 영등포까지 걸어가서 팔고 오기도 하고 나무를 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마을에 금광 광산이 2개가 있었는데 금강 1차 아파트 맞은 편에 광산이 있었는데 지금도 광산 흔적이 있다고 한다. 소래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학교에서 오다가 광산에 들어가 놀기도 했다. 어렸을 때 어른들 몇 분은 광산에 다녔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69년 후반)까지는 광산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매채기는 바닷물이 들어 왔다가 빠져 나가면 지형의 형태가 매화 꽃 형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마을에 매화꽃이 있지 않지만 어렸을 때도 매화꽃이 있지는 않았다.

마을에 배를 묶는 향나무가 2그루 있었다. 그 중에 한그루는 현재 공작빌라 앞 ‘작 노래방’ 맞은편에 있었는데, 경지 정리를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35~40년 정도 전에 향나무가 사라졌다고 한다. 동네사람들이 개인업자에게 향나무를 팔았다고 들었다. 그 향나무에 배를 묶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전해 듣기만 했다. 섬말도 떼내려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사실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1) 백승환

- ▣ 성 별 : 남
- ▣ 나 이 : 72세
- ▣ 거주지 : 도두머리

백승환 씨는 수원 백씨 집성촌이라 할 수 있는 도두머리에서 태어났다. 도창초등학교 8회 졸업생으로 학교는 걸어서 다녔다. 현재 에이스 아파트 자리가 원래는 산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항상 그 산에 가서 친구들과 놀았다. 대보름에 쥐불놀이를 하면 하상동, 하중중 아이들과 시비가 붙기도 했다. 수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건너지는 않고 쳐다보면서 석전을 벌이기도 했다.

어렸을 때 마을의 대부분은 논농사를 지었고 70년 초부터 포도농사를 시작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몇 집이 목축업을 하기도 했지만 미미했다. 두레(풍물)도 일년에 한번씩 뱃머리 있는 곳에서 놀기도 했지만, 마을간 깃싸움에 대한 기억은 없다. 도두머리, 강챙이, 점말 세 마을이 조금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다고 한다.

도두머리가 가장 크고 다음이 강챙이, 그리고 점말이다. 점말에 양조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 신천리에 양조장이 있었는데, 신천리에서 가져온 막걸리를 파는 대리점이 있었다. 점말에는 웅기 굽는 가마가 있었다. 가마를 보기는 했지만, 일제 초까지 웅기를 굽고 그 이후에는 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점말하고 바티골 사이 에이스 아파트 건너편은 ‘모아래 골짜기’로 부르고

있다. 도두머리는 어렸을 때 이미 포동을 막아서 물이 들어오거나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저 앞쪽에 고목이 있었는데 배가 들어오면 그 고목에 배를 묶었다는 얘기를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 고목이 무슨 나무였는지 기억에는 없고 40세 정도까지는 그 고목이 있었다. 그래서 뱃머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도두머리 지명에 대해서는 어른들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았다고 한다. 현재 도두머리에는 수원 백씨들이 대부분 나가고 10 여 가구만 남아 있다. 노인들도 많지 않아 30여 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 남자 어르신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다. 마을에는 논농사와 포도 농사를 몇 집 짓고 있고, 창고형 공장이 많이 늘어났다.

12) 이재웅

- ▣ 성 별 : 남
- ▣ 나 이 : 71세(1943년생)
- ▣ 거주지 : 장락골

장락골 마을 안현동 482-2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들 하나 딸 둘 나왔다. 애들은 도창초등학교 다녔다. 나중에 인천으로 나갔다. 두 분만 산다. 유래는 잘 모른다. 400년 정도 살았다. 그전에는 백 씨, 이 씨가 살았는데 지금은 세 집 정도 살았다. 일제 시대 기억 없고, 약간의 기억은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마당에서 대화를 하던 기억은 있다.

소래초등학교 나왔다. 시험이 없었고 1학년을 다니다 피난은 평택으로 갔다. 8남매 중에 셋째였다. 피난 갔다 오고 피난 가는 과정에서 사람 죽어 널브러진 것 엄청 보았다. 1.4후퇴 때 피를 더 많이 보았다. 그냥 내려가는 거다. 다리가 끊겨서 다시 돌아왔다. 28살에 결혼했다. 새마을운동 열심히 했다. 당시에 지도자였다. 그 당시에는 농업이었다. 나중에 축산을 했지만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다. 남보다 일을 많이 했다. 아들들 중에 셋째였다 형 들은 많이 배워서 나갔다. 새마을 운동 때 길 넓히고 그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부

었다. 1984년 9월 집중호우가 왔다. 북한 적십자사가 9월 8일 “쌀 5만석 , 천 50만 미터, 시멘트 10만톤, 기타 의약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걸 대한적십자가 받았다. 이북에서 옷도 주고 그랬어, 이북에서 수해났을 때 김일성 시대에 쌀과 옷감을 주었다. 옷감이라고 준 것을 모두 보자기로 썼다. 수해가 어느 정도였나. 이북에서 옷감을 딱 한 번 주었다. 물자지원을 받았다. 두레가 있었나. 어려서 농사지었으니까 내 나이로 15살까지는 두레를 보았다. 상여독이 이선이산 올라가는데 위에 있었다. 도로에서 200미터 정도 있었다. 지번으로는 매화동이다.

어렸을 때 놀이는 대보름놀이를 했다. 피리불고, 뽕가리 들고 기를 들고 가는 것들을 봤지 하지는 않았다. 머리에 풍물패들이 큰 기를 들고 가는 것들만 봤다. 당제를 지내던 나무나 성황당은 없었다. 제기차고, 구슬치기하고 놀았다. 호조벌에서 썰매 타는 놀이를 했다. 불놀이가 무서웠다. 장낙골이 매화리 큰 동네하고 싸웠다. 우리처럼 가볍게 하지 않고 각목에 붓을 박아서 때렸다. 길 건너 웬수야. 다쳐도 법도 없어, 백덕희 씨라고 구장 보고 이장 본 100세 된 분이 초등학교 때 그집 개가 박재환 씨네 외아들을 물어 죽였어, 지금 같으면 난리 나는 일이야 데 백덕희 씨가 “참. 여보게 내가 볼 낫이 없네. 미안하게 됐네 내가 개를 놔먹이는 게 아닌데 미안하다.” 하니까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개가 일부러 와서 그렇게 했나요.” 말로 하고 끝이었다.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딸 하나 로 끝났다. 그때는 법이 없어, 이장 구장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연륜이 있었고 안현리 쪽에 인지도가 있으니까 술한 잔 안 나누고 끝난 거야. 함찬 씨가 땅을 내놓았다. 토지개혁은 모른다. 벽돌 찍고 할 때 있었다. 일을 맡아서 할 때가 아니다. 벽돌 최경옥 선생 때 했다. 여름에는 잘 놀았는데 역센 사람들이 우리 동네가 많았어. 90년도 후반부터 되었다. 그린벨트 풀리기 전에 축사가 용도 변경 안했지만 공장 세를 주고 살았다. 풀렸다. 사실상 시에서 체제는 안 받았다. 그린벨트 묶이는 걸 몰랐자 백영규씨가 부면장을 했는데 왜 우리지역을 왜 풀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 당시는 그린벨트 홍보가 안 되었고 농사꾼이 돼지 기르고 소 기르는 일이 먼저 아니냐 부락 주민이 돼지 기르는데 공장 들어오면 싫으니까 당시는 그것을 반대했다. 는 대답을 들었다. 함찬 씨는 풀었다. 자기 땅 근처만 풀었다. 머리가 앞서 갔던 것이다. 함찬 씨가 장낙골에 공헌을 했다. 반 정도

가 함찬 씨 땅이었다. 조공을 받았다. 그 집 땅에서는 안 살았다. 우리 부락의 반도 넘는데 그 양반이 도지를 받는 이에게 “내 땅 맡으시오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하면 내가 톨 꺾 줄 테니 계약해라 가을에 갚아라.” 했어, 파격적으로 우리 마을에 했다. 전두환 때 통일주최국민회의 나올 때 우리 동네에서는 100% 물표를 받았다. 그 양반도 베풀었지만 우리도 베풀었다. 나는 그 양반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은 백영규가 부면장했다. 백제현이가 여수 부군수로 끝났다. 요 근래에 그랬다.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열악하고 힘들 때인데 박재형 씨하고 김용태 씨가 성공했다. 나이로 보면 75~80세였다. 나름대로 성공했다. 6.25 뒤에 나무가 굵을 나무도 없었다. 땔나무 없으니까 그 당시는 하나도 없었다. 녹화사업 할 때 60년도 70년도 초반까지도 땔나무를 했다. 묘목을 나눠주었다. 그건 일부보 군청에서 조림사업을 했다. 개인들에게 해준 것은 극소수였다.

13) 최경옥

- ▣ 성 별 : 남
- ▣ 나 이 : 76세
- ▣ 거주지 : 장락골

집안이 이 곳에서 300년 되었다. 어렸을 때 두레 옛날에 했다. 58년도까지 했다. 그 뒤부터는 하지 않았다. 동네에서 공동으로 하는 두레이지, 행사는 하지 않았다. 두레패들이 월미에서는 안 오고 군자봉에서 이곳에 왔다. 동네에 2~3일 정도 있었다. 그쪽에서 시집온 사람들은 성황이 따라온다고 해서 이곳에서 했다. 박씨네, 김씨네 며느리가 왔고 군자성황이 내려서오면 두 집을 다녀갔다. 그 후에는 장곡동도 성황 근처라고 해서 따라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없다. 50년 후 없다. 전설은 없다. 바위가 있었다. 배를 붙들어 매는 것도 다 없어졌다. 장낙골이라는 마을 유래는 이 동네가 장수하는 분들이 많다. 보통 80~90세이셨다. 아버님도 88세까지 사시고 보통 80넘은 노인이 10여분 정도됐다. 즐겁게 장수한다고 해서 장낙골이다.

우리집은 4남매였다. 남자 셋, 딸 하나. 나는 장남이었다. 우물은 매화리가면 동사무소 옆에 있었고, 공장 컨테이너박스 있는 곳의 물이 좋았다. 그러나 매립되었다. 우리집 마당 끝에도 두레박 우물이 있었다. 샘이 잘났다. 판물은 찹질한데 좋았다. 대동우물이었다. 지금은 그것도 매립되었다. 물은 지게로 지어다 먹었다. 가까워서 좋았다. 그러나 이곳은 벌판이 되어 추웠다. 가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수깁을 집집마다 모아 엮어서 우물 둘레를 치웠다. 그러면 우물이 따뜻했다. 마을은 논농사가 우선이고 포도농사를 지었고, 밭농사로는 파리고추가 유명했다. 포도는 인천 송의동시장, 서울 용산, 청량리로 갔다. 우리 집은 포도농사는 안 짓고 논농사, 밭농사였다. 파리고추는 70년도 말에서 시작해서 80년도 초까지 했다. 300평 지었다. 한 번 따면 70~80근 판다. 옛날에 세 발 달린 타이탄이 와서 가져갔다. 고추를 딸 때면 2개씩은 꼭 나갔다. 소 길렀다. 80년도 소 들어올 때 우유 소는 안하고 비육소 20두를 했다. 소 값이 괜찮았다. 직접 정육점에다 주었다. 그 당시에는 소장수들에게 안 팔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팔았다.

무교다. 만신을 믿었다. 90년도 말 부인이 불교를 믿었다. 그때는 옛날 어머니 계실 때는 푸닥거리, 굿을 했다. 산신제나 그런 것은 이 동네 없다. 그네는 내가 줏대가 되어서 산 멀리 가서 베어다 그네를 매었다. 나무에는 그네 맬 곳이 없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서 3키로 되는 산에 가서 친구들이랑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네를 땀다. 단오 때, 팔월추억에 뛰었다. 학교는 소래초등학교를 다녔다. 소래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간이학교를 다녔다. 2년 다녔다. 그 당시는 외정 때 일본말을 배웠다. 매화동에 간이학교라고 해서 6살부터 초등학교 가기까지 선 선생은 우리한테 한글을 몰래 가르켰다. 20~30명 정도 났다. 월사금 조금씩 났다. 소래초등학교 입학시험은 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이었다. 구덩이가 있고 가운데 나무다리가 있었다. 그것을 떨어지지 않고 건너는 것이 입학시험이었다. 처음에 들어갔다.

신사참배했다. 모래고개 대한주유소 맞은편에 있었다. 그 앞에 가서 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으면 그 앞에 쭉서서 절하는 것이다. 해방되었을 때 만세 부르던 생각 안나. 1학년 때 가네꼬 성생님 황선생님이었다. 한국분 있었다. 일본이름은 평산경옥이었다. 사이께 유꼬였다. 1학년 들어가고 해방되었다. 1학년 들어가서 공부 잘했다. 일본말 써 먹었어요, 손주가 일본 유학갔는데

내가 일본말 하면 할아버지 일본말하시네 했다. 소래초등학교를 거쳐서 부천 중학교, 서울 경동고등학교, 서울농대를 나왔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서 도당동까지 걸어가면 20리가 넘잖아. 고등학교 3학년 때 온수동 당숙네 집에서 다녔다. 아우하고 다니다 자취를 했다. 집에 올 때는 종로5가에서 인천 가는 버스타고 오다 우텃골, 부천에서 내려서 걸어 왔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소신여객이 처음 생겼다. 군대에서 쓰던 차다. 5원이었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다. 20살에 결혼했다. 서울농대를 갔는데 1학년 때 결혼을 했다. 아버님이 어르신이 계셔서 빨리 결혼했다.

군대 갔다. 6.25 뒷산으로 인민군이 들어와서 포를 놓고 그랬다. 집집마다 들어와서 밥해달라고 했다. 피해는 주지 않았다. 1.4후퇴 때 포탄이 날아와서 많이 죽었다. 피난민들 가다가 논에 떨어지고 시체가 열 몇 명 있었다. 피난 갔다 오니까 다 없어졌다. 피난은 군자로 갔다. 6.25 때 마을사람들이 부역한 사람도 없었고 한 사람 있었던 것은 이름만 건 거여서 나중에 끌려가는 것도 동네사람들이 빼주고 그랬다.

호조벌에서 노는 놀이는 7월 백중날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두 끝났어. 그때는 두레패들이 오늘 이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면서 두레패가 놀았다. 공동으로 몰아서 품삷을 준다. 그날이 두레패 파작 하는 날이다. 잔치하고 노는 날이었다. 대보름 달집도 만들고 산에 봉우리 세 개가 있는데 떡봉, 밥봉, 죽봉이라고 했다. 맨 앞쪽으로 달이 뜨면 풍년이 드는 떡봉, 다음 봉우리에 해가 먼저 뜨면 무해무덕 밥봉, 끝에 뜨면 흉년이 들어서 죽봉이라고 했다. 달집을 만들고 그렇게 짐을 쳤다. 80년대부터 없어졌다. 감나무가 있는데 달집을 짓고 그랬다. 정월대보름 마을대항 싸움은 매화동과 했다. 매화동 마을이 크고 우리는 작고 맨 날 졌다. 나중에 장락골과 매화동이 합쳐서 미산동과 싸웠다. 수로를 경계가 되었다. 호조벌에서 썰매타고 스케이트는 해방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무를 삼각형으로 잘라서 밑에 철사를 대고 만들었다. 타는 사람은 하지만 못타는 사람은 게다짝처럼 만들어서 타고 놀았다. 발 닿는데 삼각형에 했다. 소나무가 연해서 만드는 자료로 많이 썼다.

지금은 물을 저수지에서 관리해서 안하지만 예전에는 경리정리를 하기 전에 수리조합에서 호조벌에 물을 대놓았다. 지금쯤 물을 대놓았다. 그럼 모두가 얼음판이다. 얼음 지치기에는 논에는 배 끝이 걸려서 안 좋다. 수로는 물

이 항상 있어서 뻔드르하다. 그래서 수로에서 많이 놀았다. 그러다 얼음이 녹으면 빠지고 그랬다. 보통천에서 정월에 척사대회를 했다. 물고기는 많지 않았다. 정리정리하기 전에는 물이 괴는 데가 있어서 막아놓고 있으면 고기들이 많았었다. 어릴 때 논 놀이는 비석치기, 구슬치기, 사방치기는 여자들이하고 자치기하고 놀았다.

비육소를 기르고 다음에 임대업을 했다. 그린벨트가 돼서 5년 전 만해도 공장을 못 지었다. 그린생활로 지었다. 옛날에는 40가구였는데 지금은 10가구 밖에 안 된다. 노인회는 18년됐다. 원주민 30명 정도 되는데 다른 동네가도 온다. 남.녀가 다 한다. 회비를 지난달까지 3000원이었고 이번 달부터 5000원한다.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새마을 운동은 도로를 닦고 처음에 마을회관 짓는 걸 마을 사람들이 흑벽돌로 지었다. 나중에 비가 오고 무너져서 다시 블록으로 지었다. 블록 건물 다음에 지금의 회관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다. 땅은 50평을 함찬씨가 보조를 했다. 1960년대에 보조를 했다. 대지주라서 매화동인데 이 동네 반 이상이 그분 땅이었다. 집터나 대지는 토지개혁대상이 아니었다. 가서 달라고 했다. 마을회관터를 무상으로 줬다. 또한 함찬 씨가 2000년 도 경에 있는 땅을 지가보다 싸게 마을 사람들에겐 주었다. 장낙골 마을의 반 이상이 함찬 씨 땅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명의의 땅을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싸게 넘겨주었다. 토지개혁 때 지주는 본토박이 별로 없고 해방되고 일본사람 서울사람 땅이 많았다. 마름은 김 씨네 김창선 씨가 마름이었다. 광만 큰 거 봤지 걷어 들이는 것은 보지 못 봤다. 그분 아버님이 하다가 그랬다. 토지개혁하면서 많이 받은 사람 없다. 마을 들어오는데 이 씨네가 많이 받았다. 임대료 공장 기존 지은 것 평당 이만5-3만원 하우스는 평당 만 원 정도 받는다. 돈 걱정은 안한다. 학교 다닐 때는 돈 꾸러 다니는데 집집마다 통장들 가지고 있지 부자가 되었다. 재산가지고 간 사람들 다 망했지 없다. 점원으로 들어갔다 크게 된 사람 있는데 별로 없다. 교인들이 요즘 많다. 김치인 선생묘 관리하는 사람이 가대말에 있어서 잘 모른다. 회관 창고에 두레에 쓰던 물건들이 있다. 양태준 씨 찾으면 된다. 상여막은 불나서 없다. 공동묘지는 매화공동묘지로 했다. 지금은 시흥시 공원묘지로 많이 간다. 우리 집안은 마루미에 납골당 만들어 났다. 전주 최씨이다. 300기 넣게 만들어 났다. 성주이씨들이 있고 방죽머리에 만들어 났다.

김씨들은 없다. 박영만선생님이 마을 조사를 하셨다. 지역을 알려고 무척 애쓰셨다. 선산까지 가고 내력을 알려고 하고 족보도 들여다 보고 노력을 하셨다.

14) 권복순

- ▣ 성 별 : 여
- ▣ 나 이 : 75세
- ▣ 거주지 : 월미마을

18살에 시집왔다. 남편 친구들이 놀렸다. 남편 이름은 박용국이다. 결혼 할 때 22살이었다. 남편친구들이 놀리면 광에 들어가서 숨었다. 전쟁 때는 폭격이 심했다. 가족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다. 인민군들이 많이 있었다. 결혼은 우리 옆집이 애기아빠 큰집이라서 반 중매로 왔다. 허름하고 그랬다. 8남매 둘째 아들로 시집왔다. 을미마을에서 시집왔다.

내 친정이 을미, 지금 아파트 짓는다. 시집 온지 50년이 넘어서 엄마가 떼데로 시집가서 안 당겨서 몰라요, 피난가다 고준물 가는데 12시 넘어가는데 까치가 깹깹 짓었다. 원래 큰댁 친정이 그곳이었다. 큰댁으로 피난을 애들 업고 엄마하고 갔다. 폭격에 탄 쌀을 한참을 먹었다. 부녀회 자금 만드니라고 국수 팔고 그랬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았다. 시동생 하나였다. 맏이었다. 형제밖에 없었다. 9을 낳아서 다 죽었다. 논농사 밭농사를 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 밀양 박씨가 많았는데 종갓집이었다. 시아버님이 5대를 살았다. 대동우물을 먹었는데 시집오니까 집에 우물을 뚫다. 논에 웅덩이에 아버님이 지게로 빨래를 적사 주셨다. 눈을 때니까 냇가는 내가 가져가서 빨고, 시아버지가 신랑이 그렇게 귀한 자식인지 모르고 시집을 왔다.

어르신은 아들 둘 딸 둘을 낳다. 막내를 낳았는데 입덧이 나니까 애를 떼려갔어 아버님이 5대 독자라는 것을 듣고 안 떼었다. 애를 떼려갔는데 손이 귀한 집이라서 신랑이랑 짜고 갔는데 지금 그렇게 효도를 해. 막내가 딸인데 효도를 해. 몇억을 다 버렸어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다가 동네 분들이 도와줬

는데 막내딸이 집을 얻어줘서 한 달 쯤 살고 있다. 아버님이 애 젖을 먹으려면 들어 누웠다가도 춥다고 비켜주고 해주셨다. 시어머니도 사이좋게 살다 돌아갔다. 난 잘 몰라서 그냥 시부모랑 잘 살았어.

전쟁 후에 소를 길렀다. 목장하고 포도밭을 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했다. 공장을 다녔잖아 뭐 그렇지 뭐. 자녀들도 연성 초등학교 군자 중학교, 군자 고등학교. 군자로 가려면 걸어서 갔다. 한 말 가방을 들고 다녔다. 옛그제 그곳을 가보니 6년을 걸어 다녔구나 싶었다. 국수를 팔았다고 했는데 자금 만드느라고 부녀회장했다. 다라니장사 계란장사, 옛 장사를 해서 동네자금을 만들었다. 동네서 쓰는 거다. 수원이나 안양 가서 떼다가 팔았다. 구판장도 했다. 원래 앞이 구판장 자리였다. 동네부락에서 마을 가게가 들어온 것이다. 80년도에 했다. 50대에 했다. 마을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했다. 나중에 개인이 했다. 부녀회에서 했을 때 그랬다. 박 씨들이 많았다. 20~30가구였다. 그 당시 동네가 70가구였다. 반은 안 되고 그랬다. 교회는 마을주민들은 안 다녔다. 지금도 그렇다. 당고사들이 하는 것들 여자들 떡하고 조리 술이라고 술을 담갔다. 산제사 지낼 때 쓰고 그랬다. 떡국 했다. 돼지 잡았다. 돼지머리 고사를 지냈다. 가을에 산제사를 지낸다. 올해 음력 11월에 지낸다. 쌀을 한 말, 한 되, 그렇게 했다. 지금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냈다. 오히려 옛날에는 있는 집이 더 냈다. 옛날에는 무당 불러서 했다. 무당들이 있었나요, 없었다. 물왕골은 있었다. 정월에 가면 주무시고 오시는데 물왕동 가서 주무시고 오셨다. 나는 그때는 안다녔다. 시어머니 가시고 나중에 다녔다. 물왕골 안 다니고 물왕골로 다니다가 절로 갔다가 교회로 가 버렸다. 동네에서 닭을 잡아다가 넘어가게 하고 사람 키를 넘게 하고 보자기 씌우고 갔다. 머리에 바가지를 씌우고 했다. 자녀분도 남이 하는 것만 보고 우리는 하지 않았다.

저수지 올망대 캐고 그랬던 것들로 목을 해먹었던 기억이 있다. 을미마을에서 올망대 캐서 목 해먹었다. 이곳에 와서는 안했다. 을미마을 갈 때는 걸어갔다. 묘재 갈 때는 물왕골에서 배를 타고 갔다. 을면이면 푸줏간 있던 곳이다. 을면이 을미마을이라고도 한다. 중매를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장사를 했다. 우리집을 다니시다가 그랬다. 시장은 안양으로 다녔다. 갈치 장사들도 왔다. 신앙촌에서 어리장사가 이곳까지 왔다. 키 작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었다. 새댁이니까 나와서 구경을 못했다. 오는 소리만 들었다.

이웃에도 못 갔다. 애들 옷도 옷장수가 돌았다. 포도를 팔 때는 안양에서 팔다가 좌판에서 파는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한우를 키웠다. 몇 마리씩이었다. 목장터가 모두 공장이다. 공장 한 평에 3만원이다. 세를 준다. 우리 살던 집은 아들이 팔았다.

▶ 마을 주민 김영에

인천서 시집왔다. 25살에 시집오셨다. 오니까 우물로 밥해먹고 나무해서 불 때고 나는 불을 땔 줄 몰라서 얼마나 울면서 땀인지 몰라 서쪽을 바라보고 울었다.

15) 강상옥(노인회장)

- ▣ 성 별 : 남
- ▣ 나 이 : 67세
- ▣ 거주지 : 월미마을

물왕동 318번지에서 태어났다. 법정동은 물왕동인데 유래는 모른다. 나이든 사람들이 잘 안다. 풍물은 농사일을 월미 두레패가 원래 여기예요. 좋은 기와집이 있는 안장옥 씨 집이 좋았다. 거기서 모를 낼 때 기에 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 대나무에 적어 나가면서 쟁과리, 북, 상무까지 독으로 매화동까지 온다. 점심이나 새참 때 풍물놀이 놓고 농사 끝나면 깃발 세워놓고 풍물놀이하면서 올라온다. 밤에는 솜에다 불 붙여놓고 흥겹게 노는 거다 상무까지 돌면서 즐겁게 놀았다. 벼 벨 때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곳이 근본이다. 몇 살까지 했는가. 안양 중앙시장 열 때 건물 겨우 지을 때 흙 있을 때 월미두레풍물이 가서 가게마다 부흥하라고 덕담하고 중앙시장 개설할 때도 있었다. 초청을 해서 왔을 거다. 서울 시장도 갔다고 한다. 이승만정권 때 전국대회에서 1등하고 그랬다. 그 후로 시에서 월미두레풍물이라고 정해졌다.

농사지으면서 한 것은 언제까지 기억하는가? 20여 년 전에 끝났다. 마을 사람들이 줄어가면서 안 된 건가. 토박이들은 농사들을 많이 짓는다. 논농사,

밭농사를 짓는다. 지금 30호 정도 된다. 예전에는 60-70호 되었는데 지금은 30호다. 연령대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다. 낮은 사람들이 50대이다. 농사를 엄청 크게 지었다. 시흥군내에서도 농사가 컸다. 고향을 떠난 것은 연성초등학교 나왔다. 3회이다. 어렸을 때 노는 것은 딱지치기, 잣치기, 구슬치기들을 했다. 보통천 기억은 수영하고 고기 잡고 그러고 놀았다. 물왕저수지도 수영하고 고기 잡고 그랬다. 낙사에서 놀았다. 사고가 많았다. 저수지 안에서 많이 죽었다. 무당들이 와서 굿 도하고 그랬다. 미군애들이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서 왔다. 인천보다 용산미군들이 많이 왔다. 이 물을 떠갔다. 샤워하고 그런 물들로 물탱크로 떠갔다. 저수지물을 가져갔다. 중학교 때 까지도 물탱크가 떠갔다. 물이 맑았다. 김장도 씻고 그랬다. 빨래는 개울에서 했다. 저 앞개울은 늘 그랬고 유관으로 공사해서 그렇지 개울이 넓다. 농수로이기 때문에 개울이 넓었다. 7남매 중에 장남 강장성 아버님 탁성해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7살에 결혼을 했다. 연성초등학교 안산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는 다니다 그만 두었다. 결혼 전에 나갔다가 16~17살에 나갔다. 회사 다녔다. 사모님 김경민 50년생 64세이다. 딸 둘 낳았다. 외부에 나가있다가 들어왔다. 80년도 들어와서 젓소를 했다. 인천 연세우유로 났다. 목장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나갔다. 집집마다 목장을 했다. 먼저 하던 사람들도 있고 나는 후 발주자로 했다. 3마리로 시작했다가 망했다. 사람을 두고 하다가 망했다. 70~80년대에 목장들을 많이 했다. 그때는 착유소를 하고 안양축협 조합원이었다. 마을형태가 그대로이다. 요새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형태가 변했다. 공사들을 많이 한다. 포도도 했다. 포도 한것은 지금은 한우를 한다. 12년 차다 들어 온 것은 집사람은 일찍 들어왔고 나는 나중에 들어왔다. 한우 한 것이 10년 정도 되었다. 16마리 키운다. 포도밭은 80년 후에 시작했다. 500주 된다. 1000평이다. 장어집 뒤가 포도밭이다. 직판해서 주문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 소득은 높지 않다. 삼색포도를 하지 않는다. 가격이 비싸지 않는가. 청포도 섞어서 준다. 반응이 좋다. 집사람하고 둘이 전지하고 일 급하면 사람들 사서하고 그런다. 방앗간은 들어오는데 새로 지은 집이 방앗간이었다. 주막은 없었다. 교회는 30년 전에 들어왔다. 은자가 살던 터가 교회다. 당제사를 지낸다. 그전에는 요 아래 공장 있는데 나무가 있었다. 번개에 맞아 없어지고 관모산(갈미산) 가면 우물이 있어서 회관에서 지낸다. 당

고사 재희아버지랑 당주였다. 2년에 한 번 씩 한다. 내년엔 지낸다. 당주는 목욕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이 한다. 연도별 따져서 한다. 생년월일을 따져서 띠도 참석 못하는 것도 있다. 당주들이 동네 다니면서 예전에는 쌀을 걷었는데 2만원 씩 걷어서 재물을 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동참을 한다. 갈미산은 갈매기 형상이라고 해서 그런다. 우물이 있다. 거기서 샘이 계속 난다. 우리가 매년 당고사 지내기 전에 우물을 치고 주위를 깨끗이 한다. 당고사를 지내고 내려온다. 오래되었다. 이 마을이 생기고 여기가 오래되었을 텐데 모른다. 물왕정에도 활 쏘는 분들이 많다. 회원들이 있다. 가입해서 같이하고 그런다.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그런다. 공장들이 많아졌다. 계속 들어선다. 우선해제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온다. 7~8년 되었다. 그린벨트였다. 20가구가 넘어서 우선해제지역이 되었다.

옛날이 살기 좋았다. 조용하고 이웃끼리 친가족보다 더 친하게 지냈다. 상여독은 집 뒤에 쌓여있다. 시에서 땅 임자가 치우라고 해서 상여를 해 냈다. 시 문화원에 기증하라고 했다. 얼마 전에도 상여를 댔다. 3~4 년 전에도 상여를 댔다. 상두하는 사람은 타동에서 모셔와서 했다. 마을사람들이 꾸미고 댔다. 요 근래는 화장하고 오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상여 꾸며서 사진 찍어서 문화원에 기증하자고 했다. 그래야 보존이 된다는 회의를 했다. 상여소리 하는 사람 90세 되신 안기선 씨는 을미사람 안 씨네 푸줏간 사람이었다. 매화동 신현동 사는 사람이다. 그네를 댔다. 그것이 없어졌다. 정자나무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 그네를 댔다. 품앗이들을 했다. 수리조합비는 얼마정도 냈나. 수세는 요 근래까지 냈다. 낱알을 췌다. 공동묘지는 없다. 성씨들은 밀양 박 씨들이 많다. 전쟁 때 인천상륙작전 때 비행기가 정찰기가 웅하고 가면 30분 정도 지나면 치고 간다. 이곳에서 불발탄을 찾아갔다. 10일 전에 지금 공사하는 곳에서 나왔다. 포에서 쏜게 아니고 비행기에서 떨어진거래. 할아버지도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인천상륙작전할 때 중공군, 북한군 많았다. 비행기가 불바다를 만들었다. 마을 주민들 많이 돌아가시고 데었다. 나이가 드셔서 젊은 사람들 피난 보내고 폭탄이 나니까 옛날에는 모자를 쓰고 솜바지에 이불을 지고 배수장 있는데가 성황당 고개야. 중공군으로 오인 받아서 미군에게 총을 맞아 죽었다. 16명이 피난 가는데 오인해서 사살했다. 우리 동네 아버지와 이웃 분들이 돌아갔다. 목격자들이 가매장해서 누구네 누구네

하고 해서 나중에 주인을 찾았다. 우리는 대미라고 군자동 죽을동으로 댐이라고 불렀다. 해변 가라서 쉽다고 했다. 중공군이 많이 들어왔다. 중공군이 있으니까 폭격을 하니까 피난을 갈 수 밖에 없었다.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부농이고 굶지는 않았다. 지금은 목감동 저 쪽은 빈농이었다. 지금은 거꾸로 뒤집혀졌다. 새마을 운동 지붕 했지, 도로 했다. 앞길이 새마을 운동으로 했다. 당시는 도로를 내놓았다. 지금은 마음대로 시에서 포장을 못한다. 서울사람들이 사니까 내 땅이니까 못하게 한다. 이제는 민원 때문에 하지 않는다. 새마을 사업하면 회사했다. 분할해서 내 놓는 것 아니고 나중에 측량하다보면 세상이 바뀌어 분쟁이 일어난다. 농로가 가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이다. 통일벼 때도 동네에서 다했다. 퇴비해서 상도 받고 그랬다. 마을 전체로 해서 상을 받았다. 비석거리도 월미에 들어간다. 비석이 그전에 잇었다. 거북도 있고 샷갯도 있었다. 도로가 나면서 저쪽으로 옮겼다. 그전에는 컸다. 전설이라면 갯을 항상 내려놓는다. 그거 올려놓으면 저쪽 사람들 바람 놓는다고 하상동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려놓고 그랬다. 그런데 거북이도 사라지고 샷갯도 없어졌다. 돌 샷갯인데 그걸 올렸다 내려놓다. 바람난다고 했나 미쳤나고 했나 그랬다. 거북이 등에 비석이 있었다. 그 위에 샷갯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다. 피난 간 기억만 난다. 피난 석 달 잤다. 잤다 오니 집이 났나 난리지 뭐가 있나 땅굴파서 살았다. 땅 파서 명석떼기 걸치고 살았다. 있는집 다 부쉘진거 거적대기 걸치고 살았다. 대보름 놀이할 때는 뒷동산에 갈미산과 짚을 들고 올라가서 놀았다 나쁜들하고 하상동하고 쥐불놀이하고 싸웠다. 돌도 던지고 칼로 위협하고 다녔다. 탄피를 주워다가 화약가지고 총을 만들었다. 쳐들어가고 동네 가운데까지가고 어른들이 다나오고 다치진않았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싸워도 어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벧짚을 다 끌어들여 타작을 했는데 쥐불놀이하러가서 쌓아놓은 벧단들에 불질렀다. 장래쌀을 어떻게 했나 한가마에 닳말씩했다. 한가마에 반가마. 봄에 빌려서 겨울에 불었다. 못갠으면 안돼죠. 갠아야죠. 갠았다가 다시 했다. 우리는 얻어먹는거 모르고 시댁에서 고리채를 뵈다. 보리채에다 넣었다.

16) 양지정 이야기

▶ 이호재(성별 : 남, 나이 : 64세, 거주지 : 과림동 두무절이)

창설하고 10년이였다. 2013. 11. 9일 오늘이 겿날이다. 오늘 1등을 했다. 한 달에 한 번 계주가 먹는 것을 차린다. 오늘 계주는 무지내동 전 통장 봤던 이철수 씨다. 나는 요즘 자주 나오지 못했다. 활쏘기는 한손이 5개다. 세 번 쏜다. 오늘 한 손에 네발이 맞았다. 과녁까지 145미터이다. 양궁은 75미터이다. 좋은 점은 심신단련, 체력단련이 좋다. 또한 주위의 선후배들과 만나서 좋다. 시흥시에 6개정이 있다. 양지정에는 30명 정도 있는데 정이 많다. 오랜만에 나왔다. 사두가 2년 임기이다. 사두 취임식이 가장 크다. 시장기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나간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된다. 제주도부터 전국적으로 한다. 과림동, 은행동, 매화동, 신천동, 안현동 등 자연적으로 모인 것이다. 양지정은 도로공사 땅이다. 개발제한구역 특례법에 제지를 받는데,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봐주기도 봐주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다. 매일 와서 활 쏘고 한다. 회비 부사두 10만원, 회장은 사두이다. 부사두 2명, 이사 4명, 평사원은 3만원이 회비다. 사두가 비공식적으로 1,000만원 정도 쓴다. 먹을 것이 많다. 사두가 나이가 적어도 대접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 시흥정, 소래정은 시에서 자금을 대주고 멋있게 지었다. 소래정도 수자원공사 땅이다. 계주는 한 달에 한 번하고 전국대회를 수시로 가고 먼데는 특별회비 받고 간다. 젊은 친구 이성택이 잘 쏘서 성적이 좋다. 양지정 마을 사시는 분은 많다.

▶ 김문근(성별 : 남, 나이 : 65세, 양지정 사두)

정관에다 활을 배우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사두, 고문, 사원들이 선다. 사두가 과녁을 향해 '활을 배웁니다'고 말한다. 끝나고 '활 배우고 갑니다'하고 인사를 하고 간다. 활을 쏘면서도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존대를 한다. 싸움을 하면 이사회를 열어서 제명시킨다. 활은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활을 쓰지 못한다. 화살이 위험하기 때문에 규율이 강하다. 활은 개인 것들이다. 남의 활은 만지지 않는다. 말씀 드리고 하지 함부로 하지 않는다. 30년 구력의 분들도 있다. 여기는 10년 정도 되었다.

17) 이강한(주영숙(부인))

- ▣ 성 별 : 남
- ▣ 나 이 : 71세(1943년생)
- ▣ 거주지 : 양지말

인천서 병조참의를 하시던 어르신이 이 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이다. 이 씨가 많았는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서 모두 나갔다. 현재는 15가구 정도이다. 30여 가구가 살았다. ‘양지말’이란 이름은 별 ‘양’자, 겨울에도 저 건너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곳으로 들어오면 따뜻해, 가던 나그네도 추녀 끝에서 쉬어가고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녹고 따뜻해. 이씨 집성촌이었다. 그러나 다 떠나고 3 집 정도 남았다. 아랫말 사람이 공장 짓고, 팔고 6개월에 나가고 한사람 소유였다. 공장들 많은데 다 변 씨네 땅이었다. 변재웅 씨 땅인데 자기네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나가라고 했다. 안 나가면 철거비까지 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이사를 갔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딱지 값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나갔다. 그 후 양지말이 반쪽마을이 되었다. 한 해가 지나면 12월 31까지 지나면 무효가 된다. 유언비어가 돌았다. 지레 미리 팔고 나간 사람들이 많았다. 급하게 팔았다. 10월 12월까지 공포분위기를 줘서 그냥 뺏기는 줄 알고 그냥 떠났다. 권리가 있는데 모르고 떠났다. 무지해서 나갔다. 이쪽은 개인 것이고 도로에서 3분의 2까지 변 씨 것이었다. 우리도 국유지를 만 5천원에 샀다. 마을 사람들이 나가기 직전에 ‘변 씨에게 분할해서 파시오’ 부탁했는데 팔지 않은 것이다. 내가 소래초등학교 입학하고 4월 달에, 6월 달에 6.25가 나서 신천동으로 갔다. 은행다리 고개 산과 생매산에서 교전이 붙어서 신천리 아는 사람 집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오니 이 마을 길 옆 한 집에서만 불나고 그랬다. 옛날 초가집이었을 때 인민군이 내려왔어, 개울로 살살 끼고 내려와서 아줌마들 흰 행주치마를 뺏어갔어. 눈 속에 하얗게 숨기기 위해서 미군들이 낙하산이 우산 같은 것이 떨어져, 내려 앉아 시커먼 백인 흑인들이야. 처녀들은 도망가고 그랬다. 중공군하고 인민군에게 밥을 해달라고 그래서, 부엌에서 보리짚을 태워서 밥을 하는데 밥에다 약 넣는지 알고 따발총을 들고 지켜서 있었어, 그리고 날 보고 “간나

새끼 물을 떠오라”고 해. “지들이 떠다먹지 왜 나보고 떠다달라고 해.” 그러니까 눈이 빨간 사람이 “종간나 새끼” 하면서 충을 겨눴어. 그러자 그 사람 상관이 “애들한테 왜 충을 겨누냐”며 따귀를 때려 말렸어. 자기들도 북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생각났던거 같아.

두레 패는 없었다. 길마재는 있었다. 모내고 김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했다. 양지편, 길마재, 장낙골 등을 모두 와서 해줬다. 한 마을처럼 했다. 유민자가 부녀회장이야. 팽과리 남겨줬어. 한 바퀴 돌고 술 한동이 내고 막걸리 내고 그랬다. 논 있는 사람들이 내고 그랬다.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때는 모두 불러서 먹었다. 가을 고사 때는 절구에 뿔아서 채를 쳐서 시루떡을 해서 2개씩해서 마을을 모두 돌려서 먹었다. 떡을 돌리는 것을 아랫말, 윗말 모두 돌렸다.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없었다. 상여를 올 해 없었다. 여태 보관했는데 올 여름에 태워버렸다. 상여독 자체를 없었다. 콘테이너에다 두었는데 그럼 뭐하냐고 그 상여가 당숙어른이 생존 해 계신데 그 아저씨가 동네에다 회사 하신 것이다. 이기동 어르신이 회사한 것이다. 마을회관도 당숙어른이 땅 50평 잘라서 내놓은 것이다. 서울신문사 기자였다. 돌아가셨다. 시에서 비석도 세워준다고 했다. 회관 앞에, 아들이 싫다고 했다. 기억을 위해서 필요한데 아들이 반대해서 하지 않았다. 내세우기 싫고 목사님 되려고 한다. 유교가 많았다. 길마재교회가 있다. 아직도 10월이면 고사지내고 몇 집이 떡을 돌린다. 목사님이 찾아온다. 하느님 믿으시라고. 나도 하느님 믿는다. 사람이 다급할 때 아이구 “아버지, 어머니, 하느님 부르지 않느냐,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고 했다.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믿는 거다. 이곳은 유교가 강해서 별로 부흥이 되지 않는다. 오래된 교회치고 부흥이 안 된다.

7남매 중 맏이였다. 아버님은 농사를 지었다. 보리농사, 벼농사를 지었다. 뭘 팔아야하는데 팔게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피자, 치즈 등을 먹고 버리는 것 보면 안타깝다. 감자 고구마, 콩 등을 심었다. 74년에 결혼했다. 32살 결혼하고 아내는 천안서 와서 23살에 결혼 하셨다. 1남 1녀를 두었다. 손 아래로 동네사람들이 애들을 안고 다니고 그래서 결혼했다. 애들 공부 잘했다. 새마을 운동으로 도로 놓고 옛날에는 하수도도 수채구멍으로 콘크리트로 배관 사다가 묻고 그랬다. 울타리도 수수깡다리였는데 담을 했다. 지붕개량 초가집 벗겨내고 슬레이트 올렸다. 고추 모종을 이식해서 팔았다. 시동생

대학 딱 졸업시키니까 어느 해부터 사가던 사람들이 집에서 각자 모종을 심었다. 어느 해는 하나도 안 팔렸다. 그래서 부부가 취직했다. 남편은 소사동 낙원 부페 경비자리가 생겨서 나갔고. 나는 광덕물산에서 재단사를 했다. 외환위기 전까지 다녔다.

남자 4형제, 딸 3형제 중에 막내동생 대학 가리키느라 고생했다. 서강대 경영학과 나왔고 아들은 성균관대 나왔다. 시동생이 아들같이 생각했다. 막내 동생 김장까지 해줬다. 24년 정도 해줬다. 동서가 착해서 알아주니까. 형님 김치는 최고 하니까 열심히 해준다. 시동생이 좋아하니까 꼭 편지를 보낸다. 고생해서 김장 담가서 준다. 엄마처럼 챙겨준다. 어머님 86세에 돌아가셨다.

대보름 행사는 깡통놀이를 했다. 이 동네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전주 이씨 양반 동네라서 그렇게 안했다. 변 씨 집안에서 동네사람들이 꽤거리 지는 것이 없었다. 함찬 씨가 두고두고 갚아도 되고 분할해도 된다고 했다. 이 앞에 났는데 그린벨트라고 단속을 해서 못한다. 세종병원을 작은집처럼 다니는데 절대농지니까 농사를 지으라니까. 작년 7월에 단속이 나와서 못한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은 많이 올리고 걱정이 많다. 세종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데 농사만 지으라고 하는데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놀리고 있는 거야. 나도 수술실 4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이 배고픔을 보리밥에서 쌀을 먹게 된 것은 지금 대통령 아버지 덕분이야. 통일벼 RA 66호가 작물시험장이 필리핀에 있다. 통일벼를 장려하고 이곳에서 심었는지. 작목반이 있었다. 소독도 공동소독을 했다. 동네에 아랫사람까지 합쳐서 기계가 나왔다. 분무기 하다 농약중독 되어서 병원까지 갔다. 호조별은 항공방제를 했다. 경운기에 해서 동력분무기로 소독을 했다. 그 뒤에 단체로 농협에서 항공방제를 했다. 그게 고마워서 마을 사람들이 우물 뒤에서 국수 삶아내고 했다. 집 지을 때 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1,300평이 있었다. 보상 받아서 초가집 허물고 벽돌집을 지은 것이다. 보상은 잘 못 받았다. 필지를 둘로 나눠서 한 필지는 싸게 하고, 하나는 비싸게 하고 장난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10만원이고 하나는 8만원이었다. 마차 다니던 곳은 더 싸게 해주고 했다. 지금 같으면 어렵

도 없다. 다 도로 속에 들었다. 마을 사람들 목장들을 많이 했다. 목장은 하지 않았다. 나머지 시동생들 주고 집 지을 게 딱 남았다.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나면서 맥을 끊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 허리를 자르는데 물이 산꼭대기에서 나오더라고, 이리로 내려와야 하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으로 내려가더라. 바위에서 팔팔거리고 이리로 내려오던 맑은 물이 나오는 게 다른 곳으로 가서 안 좋은 거라고 말들을 했다. 이쪽 마을들은 호조벌에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았다. 가대말은 원래가 별로 없었다. 유충형 씨 농협장 형이 있다. 거기야말로 다 나갔다. 길마재와 양지편이 많이 남았다. 대동우물 앞에 있었는데 매립했다. 물둥이이고 할머니들이 왔다. 아랫말에서 다 왔다. 여기물이 좋아서 도토리녹말을 해도 물이 세면 가라앉히지 않아서 지게로 지고 와서 물들을 길어왔다. 상수도 들어온 집도 있고 집마다 우물을 판다. 우물에 제사를 지냈다. 과림동 넘어가는 고개에 성황당과 약수터가 있었는데 옷이 오르면 그 물을 썼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 창성포장 있는데 우측으로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황당이 없다. 약물도 있었다. 추위도, 더위도 나왔는데 다 없어졌다. 이제는 수도 놓고, 지하수 먹는 사람도 먹고 그랬다.

길마재 강화슈퍼 바로 옆이 주막이었다. 설령탕집 자리가 구멍가게하고 주막집이었다. 이 동네도 조그만 가게가 있었다. (주영숙, 1952년생, 62세) 부녀회장 집이 간단한 라면 등을 팔았다. 부녀회장을 오래했다. 74년도에 시집 오니까 엉망이었다. 소풍 피해가면서 왔다. 이곳에서 죽어도 못 산다 했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동서가 먼저 임신했더라고. 다 초가집이고 벽은 허물어져서 밖이 보이고 맨 날 집 앞의 길 쳐다보면서 울었다. 어머님이 자식들을 잘 놓았다. 자기 형이 선 만 보면 안하고 3월 24일에 선을 보고 5월 7일 결혼했다. 가을까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결혼했다. 고부갈등 없었다. 우리가 텔레비전보고 있을 때면 시어머니가 몰래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딱 깔아놔. 저녁 시간이 되면 쌀을 딱 씻어놔, 다른 시어머니들이 왜 며느리 두고 그러냐고 하면 “나 아프면 네가 물이라도 떠다 줄 거 아니냐. 내가 움직일 때 널 도와주겠다.” 그러셨어. 처음에는 힘들었지. 청소를 하려면 옷에 먼지 올라간다고 못 쓸게 하고 빨래하려고 하면 시누이가 냇가로 가서 딱 빨래를 빨아, 시할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끼니까 시누이들도 다른 엄

마들이 딸이 시집가면 딸을 챙기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오직 우리 은영(손주 며느리)이야. 동네 또래의 친구들이 어머니와 궁합이 맞았다고 그래. 어머니가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안 되고 서로 좋아했으니까. 젊어서 가끔 어머니를 보면서 “설마 남의 새끼가 그렇게 좋을까” 했는데 며느리를 얻고 보니까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명절 전에도 이틀 전에 와, 그래서 전 날 시장보고 같이 일해 제사 때도 미리와 너무너무 잘 해, 어떻게 이틀 전에 오는지 몰라,”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꼈다. 부녀회장 할 때 한 달에 5,000원, 만원 냈다. 어른들 매달 1일 월례회 때 식사대접들을 했다. 매년 1일 장락골 어른들이 오시면 칭찬을 한데, 지금은 다들 사 잡으신다. 마을회관이 노는데 할머니 있을 집이 없어, 그래서 올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이곳은 닫혀있다. 1년 동안 중앙회에 있는 목요장터에서 주차장 자리 북시흥자리가 빈 공간이 있었다. 부녀회에서 김치를 해가지고 가서 잔치국수 장사를 했다. 봉사활동이 저 하고는 사람들이 없어서 끊어졌다. 아무도 안하니까 부녀회장 하다가 없어졌다. 대야복지관을 다닌다.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대야복지관에서 친구들 모이면 우리 춤, 한 춤하고 장구를 한다고 하더라고 하고 싶었다. 백화점건물 문화센터에서하면 8-9만원 했다. 6개월에 2만5천원내면 되었다. 그래서 시작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목요일까지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갯골축제 할 때 공연했다. 인원이 처음에는 도전을 하는데 한 3개월 되면 다 떨어져. 뽕과리 배운다.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우리가 맨 날 놀러간다고 하겠지. 하고 웃었다. 6년 사이에 남은이가 2명이다. 8년 된 사람들이 10명이다. 초급은 30명인데 모두 떨어져나가. 운동은 그냥 가는데 떨어져 나간다. 부지런히 해놓고 간다. 의상 입혀줄 때, 과정도 짚어야한다고 짚었다. 동네에 와서 좋았다. 모르고 왔다. 돌아가시기 두 달 전에 그래도 잘 건디셨는데 그 뜨거운 물에 그랬는지 꿈쩍 못하니까 욕창이 돼. 4월 1일 입원했는데 6월 5일 그 사이에 신랑은 신랑대로 세종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양면마비가 왔다. 병원에 계실 때 내가 들어가면 에미야 에미야 에서 엄마라고 부르셨다. 다 잊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엄마 그러시더라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집으로 모셨는데 내일 돌아가시면 이상해 일요일 아침에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셋째 서방님 오라고 할까요? 여쭙보니까 그때는 제 정신으로 “손님이 오면 너만 피 시려워!” 하시

면서 그러더라고 . 남편을 월요일 아침 출근시키고 7시 20분쯤 되어 오늘은 무슨 죽을 뭘 썬드릴까 하고 주방을 돌고 가니까 119부르라고 해서 보니까 운명하셨더라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드님 보고 싶은 것 보다 며느리 힘들 것에 더 신경을 쓰셨다. 평소에 “옷 입고 나가면 네 뒷모습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셨다. 애들도 방 네 개가 필요해도 아들이 할머니랑 같이 한 방을 썼다. 당숙양반이 추천해서 90년경에 효부상을 탔다. 고추 모를 했던 사진이 있다. 애들이 가져갔다. 데리고 나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다. 우리 아버님 상여를 했다. 셋째 시동생이 했다. 외곽도로 성토하는 것들도 모두 있다. 개까지 뛰놀던 것이 있다. 20여 년 전에 찍었다. 시동생이 한전 다니다가 외국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찍었다.

18) 김금용

- ▣ 성 별 : 남
- ▣ 나 이 : 76세
- ▣ 거주지 : 길마재

길마재 이름이 붙은 것은 들어오는 고개가 소잔등에 얻는 길마처럼 생겨서 그렇게 붙었다. 이 마을사람들은 저 앞에 산을 덤배산(양지산)으로 부른다. 저 산이 군대지도에는 길마산이라고 나온다. 또한 소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송내동이라고 했다. 소나무가 없어진 것은 광복이 되면서 집들 짓고 땔나무로 베어다 팔고 하면서 없어졌다. 60년대 군사혁명이 일어 났을 때 입산금지라고 해서 산에 나무들이 생긴 거다.

조상은 경남 밀양 김 씨이다. 소래초등학교 다녔다. 걸어서 갔다. 가는 길들이 모두 자갈밭이었다. 자갈밭을 게다 짹을 신고 다녔다. 게다 짹이 차면 피가 철철 났다. 일제강점기여서 게다 짹을 신었다. 그걸 와다지라고 한다. 김광봉 아버님, 어머니 경주 김씨 김계영에서 10남매의 장남이었다. 이 동네에서는 종가였다. 밀양 김 씨네가 인천으로 퍼져서 그렇지 아버님 형제가 4형제였고 집안이 변화했다. 김씨 집성촌이다. 김해 김씨가 가락 인도사람 그 사

람들 죽보는 없다. 김치인은 청풍 김 씨이다. 김치인이 7대 영의정이었다. 청풍 김씨가 있었다. 지금은 없다. 신천리에 김진도 씨가 있었는데 신천리에 김관영이라고 부평경찰서 수사과장 하던 사람이 있다. 아래에 있는 대동우물이 참 좋다. 산소 쓸 때 물이 말랐다. 무덤의 때가 강화에서 왔다. 영국 놈들이 와서 석등, 등을 가져갔다. 그전에 강화에서 전쟁할 때 그 때 가져갔다. 동관이 송내동인데 그렇게 좋던 곳이 청풍 김씨 네가 밭을 뺏고 하니까 하마비 이런 것들이 길마처럼 생겼는데 비석이 바로 앞에 있다. 학의 날개를 눌렀다고 한다. 어렸을 때 무덤에서 놀았다. 김치인 묘 날개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고 바지 태워먹고 그러고 놀았다.

일본글을 3년 배웠는데 광복이 되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6.25가 났다. 이 동네는 깨끗했다. 16살에 6.25가 났다. 동창 2~3살 많은 동창들 중에 죽은 애들도 많았다. 소래초등학교 26회다. 피난을 오산리로 갔다. 9.28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인천에서 함포를 쏘서 집이 여섯 채 탔다. 사람도 몇 명 죽었다. 1.4후퇴 전에 10월 달부터 제2국민병을 1차부터 4차까지 뽑았다. 나이 많은 동창들은 제2국민병으로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다. 동창은 18살까지 뽑았으니까 여기 담당 전쟁은 17연대 18연대가 맡아서 했다. 최병직 18연대 연대장이 문을 열어 났다. 대응사격도 못하고 문 열어놓고 도망가서 죽었다. 59. 1. 25일 군대에서 들어왔다. 60 년대에 군사혁명 일어났다.

29살에 결혼했다. 신부는 은행동에서 왔다. 23살이었다. 아들 둘, 딸 둘이었는데 아들을 21살 먹고 먼저 보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안양 살고 딸 인천 살고, 청주 살고 둘 만 산다. 위로 누이가 있었고, 여동생이 다섯 명 있었다. 다 결혼시키고 결혼했다. 아들 많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 있는 사람이 부자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다. 일제강점기에는 벼를 10가마를 하면 9가마를 일본 놈들이 가져갔다. 90%를 가져가고 배급을 주었다. 콩 깨묵도 배급받아서 먹어봤다. 무쇠 솥이고 놋그릇 다 빼어서 대포 만들고 그랬다.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했나. 새마을 지도자라는 걸 박통이 군사혁명 일으켜서 육군대위만 되어도 현역 면장이 되었다. 새마을지도자, 이장이 있었다. 새마을지도자를 전부 대전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받고 보내면서 대한민국

국, 저 전라남도, 모두 시멘트 같은 것들 무료로 받고 지붕개량을 했다. 당시 지붕을 이영으로 엮어서 했는데, 스텐트를 공급해서 지붕개량하고 나중에는 기와를 올렸다. 새마을지도자할 때 그 때 돈 300만원을 마을마다 주었다. 지금도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데 당시는 농협을 통해서 나왔다. 300만원으로 소를 샀다. 1960년도와 1961년도에 했다.

안현동이 4개 부락이었다. 한 개 부락이 40호가 넘었다. 그 후로 안현 1리 2리로 쪼개졌다. 장락골 2리, 이곳은 1리였다. 그 다음부터는 1통부터 4통까지 있다. 안현 1리는 80호가 넘었다. 안현 2리와 300만원 받은 돈을 반으로 나눴다. 반으로 나눈 150만원은 마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송아지를 샀다. 길마재는 송아지를 길러서 이가 남은 것은 제비 뽑은 사람이 가지고 본전 15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지었다. 2리는 주민들이 나눠가졌다. 마을회관은 스텐트 지붕에 흙벽돌이었다. 땅은 도로 끝 절개지였다. 이장을 맡아보았다. 나중에 그 땅을 60 만원씩 주고 22평을 샀다. 백청수 시장 때 무릎을 맞대고 씨름을 해서 22평을 시흥시에 회사하고 건물을 지었다. 주민들이 꽤 많다. 지금 몽친 사람들이 32 사람이다. 이중계이다. 이 동네서 묶은 이중계이다. 다른 마을에서 이사 오면 쌀 한 말, 떡국, 술 한 동이를 내야 회원으로 받아준다. 정월보름에 쌀은 팔아 마을 돈으로 만들어 소 접시 200개, 중 접시 200 개, 대 접시 200개 등 마을회관에 잔뜩 있다.

징, 팽과리들도 있었다. 두레는 내가 이장 볼 때까지 있었다. 33살까지 이장을 보았다. 두레는 정월에 여름에 마을 집집이 논을 매고 한 결산을 보고 열 섬지기 한 사람, 한 섬지기 한사람 분배해서 싹 돈을 걷었다. 20마지기까 한 섬지기이다. 그럼 품삯을 내놔서 채워줄 사람은 채워주고 나머지 돈은 마을 돈을 만든다. 정월 초부터 각자 집들에서 떡국내고 다니면서 쌀도 주고 말로 내놓고, 동네 돈을 만들어서 돈이 많다.

노인회 회장을 하면서 그동안 무슨 사업을 했는지를 사진 찍어 보내면 당선이 되었다. 무조건 1등 한다. 그럼 50만원, 30만원 나온다. 당년에만 동네 기금이 700만원이 들어왔어. 7년 동안 한번 못 놀러간 걸 봄, 가을 놀러가고, 월곶 한우마을 가서 고기 먹여주지, 자장면 돌려가면서 먹여주지, 내가 먼저 점심을 내면 돌아가면서 낸다. 지금 회원들이 아주머니까지 36명이다. 회비 받는 회원만 22명이다. 회비는 5,000원 받는다. 22명이래야 11만원이다. 커피

값이 모자란다. 커피를 보따리로 사다준다. 7~8잔 마시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아니다. 열쇠를 이사람 저사람 가지면서 관리가 안 되어 도둑이 몇 번이 들었다. 쌀도 훔쳐간다. 내가 갖고 총무, 통장, 앞에 젊은 사람 71살이야. 젊은 놈이 71살이야. 지압하는 것 김치냉장고 등 마을회관 살림들이 많다. 마을회관에는 12시 안에는 사람들이 있다. 12시 지나면 점심 먹으러 가고 춤 추러가고 고스톱 하러 간다. 원칙을 아줌마들에게는 회원들은 받지 말라고 했다. 시에서 쌀 쥐, 김장 때 몇 통씩 시에서 해다 준다. 김치냉장고 있으니까 여자회원들에게는 받지 말라고 한 것은 방 치워 주고 하는데, 또 김 씨 집안이 많으니까, 아주버님이 회장이고 시동생이 총무니까, 아줌마들이 안 온다. 그래도 실컷 먹는데 김윤식 시장도 나하고 무릎만 맞대면 골아 떨어지는 거다.

마을에서 주 수입으로 한 것은 처음에는 고추를 심었다. 참외도 심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배가 고평데 참외는 안 심었다. 해방되면서 심은 채소들을 도라꾸에 실어서 인천이나 용산에 갖다 팔았다. 짐차로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각자의 집을 갈라서 놓고 그날 판 물건의 장기도 그 사람이 찾았다. 당시는 고추, 참외하고 포도를 주업으로 했다. 포도, 복숭아, 배도했다. 햇수가 갈수록 복숭아 벌레가 많았다. 껍질을 까고 유향합제를 하고 신경을 써도 복숭아도 작아지고 썩는다. 배는 30리 밖에 향나무 있으면 향 꽃가루가 붙으면 하나도 못한다. 나중에 이곳은 전부 포도밭이었다. 포도하면서 목장도 했다. 우리는 포도만 했다. 하도 돌아다니니까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불쌍한 사람이나 하지 나는 못해요. 아무리 깨끗해도 냄새가 난다. 경운기도 최초로 부린 사람이 나다. 60년도 늑막염 걸려서 2년 만에 땅을 디딘 사람이다. 63년도 지도자 생활했으니까 65년도에 120만원주고 샀다. 지금 1,200만 원 정도 된다. 한 대만 사면 이집 저집에서 샀다. 경운기 천지였다. 경운기로 갈지 써리지, 이양기 나오지, 몇 집에서 얻어서 샀다. 이양기로 7,000~8,000평 정도는 이틀이면 냈다.

이쪽은 모두 호조벌에서 농사를 지었다. 논농사도 이쪽은 일찍 들어왔다. 그린벨트 생기면서부터 목장 했던 곳이 공장이 들어왔다. 공장 들어오면서 목장을 안했다. 소만 기르면 했다. 목장해서 이남은 사람 없다. 난 끄는 것만 했다. 받는 소만 했다. 공장은 안했다. 이쪽은 공장으로 해서 용돈 쓰고 벌금

들 낸다.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서 구획정리를 했다. 내가 그전 같으면 구획정리 다했지 내가 이제는 나이 들어서 하지 않는다. 노인회가 93년부터 조직되었다. 저 윗집은 주차장이 작아서 공장 지은 지 1년이 넘어도 세가 안 들어와 주차장이 없어, 두 아래 한 놈이 다 지은 건데 자가용 2~3대 놓게 지어서 공장 임대도 안 들어왔다. 부천시가 되면서 발전이 되면서 서울, 인천 놈들이 몰려 와서 2층 살림 집 짓고 논 한 평에 만원 10만원 하던 거 팔고 들어왔는데 너무 터가 없이 지어서 안 들어온다. 소 먹이던 자리다. 우사로 지어서 공장으로 써먹는데 벌금내도 더 나오니까 하는 거다. 마을자랑이 대동우물이다. 지금도 물이 철철 내려간다. 예전에는 모두 그 물을 썼지만 동네사람들이 각자 우물 파서 쓰고 해서 지금은 빨래터가 되었다. 그 물을 마시면 설사가 막히는 물이다. 약물이다. 물에서 해금내(흙내)가 난다. 팽나무까지 배가 들어오던 거야. 들은 이야기야. 뱃터도 배가 닿았던 마을이라는 데서 마을이름이 남겨진 거다. 그 당시에는 배가 꼭대기까지 간 거야. 내가 본 것은 새우개 앞에 걸쭉까지 배가 들어오는 것은 봤어. 새우젓 만들고 새우젓장사들이 독으로 지고 다니면서 팔던 것을 기억한다. 새우개 정창길은 서울서 내려와 이장하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배를 부리고 그랬다. 마을 인물들은 이 동네에서 없고, 우터골 황철수 씨가 국회의원 했고 지금은 매화동 섬말 함진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낙하산 국회의원이다. 자유당에서 내려 보내고 자유당 패거리지고 박정희 때 공화당이 패거리를 짓고 했다.

토지개혁은 서울 사람이 다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나 학교 다닐 때 그때도 일본사람들이 도지를 가져갔다. 정부에서 이승만 박사가 할 때, 광명 설어리 가리대 최 씨가 부자였어. 일본사람들이 땅을 산 신탁회사도 있었어, 그 사람 땅이었어. 그 사람들이 도지 받았는데 광복되고 토지개혁하면서 소작인들이 정부 땅을 받았다. 소작하던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 마름 농사를 관리하면서 마름이 권리가 좋은지 갈비짜이 안 들어가면 소작을 떼는 거야. '마름이 너! 오구지, 앞방둑, 개자리 땅 하지마' 하면 그만이야. 지주가 더 부자가 돼. 양지편 이태희가 마름이었어, 그 마름 아들들도 다 죽고 손자도 70넘었어, 이쪽은 최 씨 한 집이 있었다. 부자였었다. 마름도 농사를 지었다. 자기가 농사짓는 거 나눠주고 했다. 일제강점기에

도 땅을 팔 거 아니요. 만 원짜리면 5천원에도 사고 그랬다. 부자였다. 부잔 데 부자가 3대가 남는다는데 거짓말이야. 당대에 거지가 되어 버렸어.

마을대항으로 대보름 때 싸움 안했다. 1개리 장낙골, 가대말, 길마재, 양지 편, 안현2리, 지금은 가대말 1통, 양지말 2통, 장낙골 3통이다. 목감천을 기준으로 한다. 저쪽 서면이고 이쪽은 소래면이었다. 정월이었다. 두레패가 놀면 낭대만 꽃았다면 쫑털을 빼와야 해, 먼저 만든 게 어른이야, 그놈이 이쪽 보고 먼저 절을 해야 해, 그럴 안하면 싸움이 나는 거야. 길마재가 서열이 1등이었다. 은행정, 매화동, 장낙골, 미산동도 있었다. 절을 하고 지나가야지 안하면 못 들어가. 신사적이어서 싸우지 않았다. 우리마을 낭대를 보면 절을 하고 지나갔다. 쫑의 장목을 보면 먼저 절을 했다. 오월 단오에는 그네를 땀다. 집 뒤에 은행나무가 두 아름 되는 나무가 있었다. 그네를 땀다. 당고사를 지내는 나무는 대감산소(김치인 묘) 밑에 단풍나무가 있었다. 당나무라고 해서 그 곳에서 했다. 큰 고목나무에 했지만 우리는 단풍나무에다 정월이면 마을 어른들이 소잡고 당고사를 지냈다. 농사가 많으니까 돈을 내놓아야해. 그 집 일을 모두 해주니까 품값을 내놓아야했다. 평당 얼마씩 해서 그래, 돈이 남으면 소를 잡고 그랬다. 어릴 때 내가 뛰어다니면서 심부름을 하고 떡을 얻어먹었다. 학교 졸업하기 전에 없어졌다. 교회 지은 지가 20~30년 됐다. 교인이 별로 없다. 먼데서 와서 20명 정도 됐다. 동네에는 서너 사람 다닌다. 이곳은 유교사상이 많다.

계수리 저수지 가서 수영하러갔다. 어려서도 수영하고 포리는 찐물이어서 수영은 안하고 게를 잡고 놀았다. 새우개 앞에서 게와 맛을 잡았다. 한 개, 보통천 물왕리에서 내려오는 데서도 놀았다. 가물치도 잡았다. 일제강점기에는 도창동이나 방죽머리사람들도 신천리까지 모두 걸어서 다녔다. 방학 때면 도두머리 앞 한개로 가서 가물치를 잡고 놀았다. 한개 독에는 매운 풀이 있다.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풀을 말려서 돌맹이로 지지면 매운 물이 나와 그 걸 가져나가 보통천 물에 담그면 붕어가 쪽 뺏어. 기절했을 때 빨리 잡아야지 조금 지나면 물고기들이 정신 차리고 도망가고 했다. 그렇게 잡은 고기들을 집에서 가져온 애호박, 고추 등을 넣고 끓여서 먹었어. 뱀장어도 많았어. 낚시가 이빠지가 4개씩 달렸어, 거기에 뱀장어가 찍혀나왔다. 예전에는 구획 정리하기 전에 논에 샘만 있으면 채만 가지고 가면 미꾸라지들이 많았지요,

한 사발만 잡으면 가져다 끓여 먹었다. 지금은 오염이 많이 돼서 없고, 그 독한 줄풀이 안 살아요, 독해서 저수지 논물 대는 것만 제대로 놔두고 다른 노깅을 묻고 공장폐수들을 빼는 거야. 보기는 깨끗해 보여, 제기차고, 잣치고, 비석치기하고, 머리에 이고 가서 놀고, 팽이,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다. 그때는 그득했다. 얼어붙었다. 한개에서 스케이트로 타고 넷독으로 가면 새 우개까지 간다. 정월, 2월, 3월 가오리연, 방패연을 만들어서 여기는 나가면 나무에 걸리니까 호조벌은 멀고 마을 앞 논에서 연을 쥘다. 날리는 것을 “연 찌러가자”하고 갔다.

김치인 묘를 쓰고 비석 날개에다 눌러서 날지를 못하고 이쪽에서 몰락을 했다고 말들을 했다. 이 곳에서는 옛날에는 말을 내려서 갔다. 하마비가 있었다. 말타고 고개를 못 넘어갔어, 어릴 때 기억으로 왜놈들이 이쪽에서 기마병이라고 말타고 가다가 넘어졌어, 나도 봤는데 말이 나가 떨어졌다. 이쪽 길에서 기마병들이 훈련들을 했다. 자갈길이어서 말이 뛰는 소리가 다 들려, 일본놈들이 훈련을 하는거야. 일본 군인들이 말 타고 가다 넘어지면 “너 이 곳에서 말에서 안 내리고 가서 죄 받아서 그런 거다”라고 그랬다. 길마산이라고 나온다. 덩배산이라고 하지만. 소래산 다음이다. 길마처럼 생겼다. 양지편은 빗양장 별이 이른다. 아름다울 ‘가’ 터 ‘대’ 자라서 가대골 양지편은 42호가 살다가 저 윗동네 13집 정도만 각자 서울에 신승철이라고 할아버지가 터를 가지고 있었다. 신승철이 강원도청 나와서 할아버지 터를 찾아왔다. 팔아가서 사게 만들었다. 10만원이면 4만이다 하고 다 사라고 해서, 아저씨 사라고 해서 다 샀다. 광복되면서 다 부자가 됐다. 아래는 변씨네가 한 동네를 다 가지고 있었다. 가을이면 도지를 주었다. 한 가마, 두 가마 했다. 그 아들이 일제 때 선생 노릇하다 친일파라고 해서 도망쳐서 이곳에서 살았다. 변씨가 4집이고 모두가 전주 이씨가 다 살았다. 변 서방 네 터에다 집을 짓고 살았다. 이 서방이 못됐어, 변 씨가 만만하니까 우습게 알았다. 나도 돈 좀 생기면 좋잖아, 변 선생이 우리 4학년 때 선생 노릇을 했는데 지금도 변 선생 님하는데 살아 계셔, 그때 이 서방들, 남의 터에 사니 그냥 팔라주라고 했는데, 변 선생님이 “이 사람이 참, 무슨 소리하고 있어.” 하더니 다른 때는 차를 태워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차도 안 태우고 했다. 이 씨들이 무시하니까 한 사람한테 팔았어, 나가라고 하니까 모두 딱지를 팔고 나갔다. 모두 나갔

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모두 공장으로 지은 것이다. 노인회장 하상연 씨가 있다. 양지편 옷말은 안 그렇다. 이기동씨가 회관만 짓고 있는 것이지 아랫말은 모두 공장이다. 314-2887. 전화번호 아침 10쯤 나가서 3시쯤 들어온다. 양지정에서 활 안 쏜다. 아버님이 1909년생이신데 활을 쏘실 때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활을 가르쳐 주고 했다. 배 운동 가슴 운동 다 된다는 데 별거 아니어서 활 안 쏜다.

어릴 때 스케이트 잘 탔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스케이트들을 탔다, 6.25 전부터 타고 놀았다. 쇧조각을 대장간으로 가져가 잘라서 스케이트 날처럼 만들어서 뿔을 세워요, 나무를 깎아서 불에다 달궈서 때려 받으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게 만드는데 원리를 생각해서 만들었다. 전쟁하고 고철이 많이 나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대장장이한테 가서 앞을 만들고 때리고 뿔을 세워 달라고 해서 두 개 만들었다. 젓은 소나무를 구해서 했다. 그 다음에 못을 대가리만 남게 해서 걸고 끈을 만들어서 갔다. 너도 나도 사서 살았다. 계수리 저수지는 안 열어서 논바닥이 모두 논이었다. 지금처럼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서 깊은 논 낮은 논 수문만 막으면 물이 가득했다. 한개에 가서 놀았다. 들어가면 안보여 그걸 타고 새우개까지 갔다.

하중리 동창 장각순, 김홍렬, 한상철이 모두 동창이다. 새우개, 도창초등학교 모두 친구다. 도창초등학교 분교였다. 3학년정도 되면 소래초등학교에서 졸업했다. 8.15 해방되면서 분교가 도창초등학교가 되었다. 광복 때 딱지를 10개를 쥐 다 뺏기면 반쯤 죽어요. 한글 쓰면 빼앗기는 거야. 3학년 1학기 때 공부하고 2학개 때 지금도 일본말 유창해요, 무서워서요. 소래초등학교 시험을 보는게 고기를 그린 각종아리가 있어, 머리를 보려고 이것 중에 어느게 무겁냐고 그래. 나는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림보다 무게가 궁금해서 하나씩 들어보고 이게 무겁다고 했다. ‘요놈 바람’ 했다. 외나무다리 만들어놓고 떨어지지 말고 건너라, 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라고 한다. 줄을 밟지 않고 가게 했다. 거기서 합격했다. 떨어지면 다음에 가야 해, 그렇게 떨어져서 그 이듬에 오고, 또 이듬해 오고 해서, 2~3살 더 먹었는데 동창들이 많았다.

‘진사삼빠이’라고 진사참배는 신천리 모래고개 아래에 있었다. 예전에는 양 쪽이 산이고 높았어, 진사삼빠이라고 당처럼 세워놓고 알록달록 칠을 하고 기둥을 하고 갈 적, 올 적 꼭 해야 해. 그래도 인사 안 하고 내 뛰는 놈

도 있었다. 창시개명도 했다. 가네까와 곤니오가 이름이었다. 해방되고 내 별명이 곤유라고 곤쟁이라고 했다. 곤쟁이라고 자디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나오는 곤쟁이 젓이 맛있어, 알까지 있어서 어른들이 드시는 것이었다. 곤쟁이라고 별명이 됐다.

시흥시에 평통위원 한상철이 동창이고 시 나는 반공연맹 시흥군청 사무실에 나갔다. 반공연맹은 조직원이 있었다. 시흥군 반공연맹이 있으면 면마다 반공연맹이 있었다. 반공연맹에 조직을 가입하니까 위원장을 했다. 이진탁, 김상호 씨가 군수 할 때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영농회장을 했다. 비료는 복합비료, 요소 등을 모두 달아서 한 마지기 당 가져가는 분량을 비료포대를 뜯어 저울질해서 나눠주었다. 이장하면 논 안 팔아 먹은 사람 없다. 면서기가 꼭 이장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술 줘야지, 밀주 단속하는 세무사 직원이 이장집은 뒤지질 않아. 이장은 면서기부터 손님들 접대로 당연히 술을 담아 건어먹일 텐데 밀주를 담근 것을 알아도 뒤지질 않았다. 잡히면 벌금 물어야 하니까. 우리집 뒤가 동산이었는데 동네에서 콩을 세웠다가 겨울이면 털었다. 그리고 콩가지를 세우고 그 아래 밀주들을 담았다. 세무서에서 나와 콩가지를 쭈셔서 밀주 담은 것을 찾았다. 우리는 그 독 주인이 누군지 알지만 그래도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 밀주단속을 안한 것은 통일벼 쌀은 그 밥은 정말 못 먹어. 천상 술이나 해먹으라고 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술을 막았어, 밀주는 용납을 안했다. 통일벼 호조별 작목반 했다. 회장을 했다. 호조별에는 못 심는다, 건드리기만 하면 쏘아져서 고래실 다랑치 논에만 장려를 했다. 1등을 했다. 상금을 받았다. 송아지 한 마리 받을 정도는 받았다. 그때 평으로 떠요, 동그랗게 두 줄이면 두 줄, 한 평이면 한 평을 털어 심은 사람마다 털으니까 소출이 시흥시에서 1등을 했다. 물세는 수리조합비를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물세를 안 받았다. 750평에 수세를 다섯 가마를 냈다. 털어서 말린 것을 냈다. 장래쌀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쌀 한가마면 반 가마 가져와 반 장래라고 했다. 장래쌀은 가까운 사람 아니면 안주었다. 호조별이어서 먹고 사는 것은 넉넉했다. 장래쌀 도지를 쌀 두가마 나오면 한 가마 주었다. 반 타작했죠, 부지런한 사람은 나무를 해서 팔아서 썼지, 장래쌀을 얻어서 안 그랬다. 나는 나무해서 팔지는 않았다.

19) 서강원

- ▣ 성 별 : 남
- ▣ 나 이 : 101세
- ▣ 거주지 : 길마재

고향에 갈 날이 얼마 남았어. 오산에서 16살까지 살았고, 인천으로 떠났어. 인천에서 20년 살았고, 36살에 안현동에 들어왔다. 농사 3,000평 지어, 공장이 없었고, 품이나 팔아먹고 보리쌀 한 되 주고 받았어. 사람을 잡아먹어 일이 힘들어서 가마쳐서 먹고 살았어. 고향에서 가마를 쳤어 16살까지 오산에서 했어. 9살부터 매끼 꼬고 살았어. 16살에 살 수가 없어서 인천 가서 살았어. 인도서, 중국서 큰 배가 들어와 그걸 풀면 하루에 30원, 40원 벌었어. 지금으로 치면 4만원. 밤낮으로 하면 70~80원 벌었어. 사글세가 30원이었다. 여기서 벌어서 땅을 샀어. 여기서도 30원이었다. 모내는 품삤이었다. 12살부터 매끼 꼬고 22살에 장가갔어. 그때 돈 품이나 벌고 해야 장가가지 아니면 30이 넘어도 장가가지 못했어. 여름 내내 돈 100원 벌어서 집을 하나 샀어. 모내고 김매주고 품값으로 사글세 살던 집을 80원주고 샀어. 방이 두 개야, 먹고 살만하니까 누가 장가들라고 해서 한꺼번에 색시감이 세 사람이 와서 셋중에 하나를 뽑았어.

인천서 딸 셋, 아들 둘을 낳았어. 딸이 76살이야. 인천서 소마차로 돈 벌어서 안현동 길마재 땅을 샀어, 몇 마지기 샀어. 지금 집터가 1,300원으로 300평이야. 쌀 두가마가 1,300이야. 700평을 500원 주고 샀어. 땅이 한 평에 20원이었어, 이 집은 6.25 때 불이 났어. 그래서 다시 짓고, 이 집은 세 번째 지은 집이야. 대감 땅이 많이 나왔고 다 팔고 갔어. 산소 1,000평 밖에 없어. 자식 앞으로 다 되어 있어서 나는 아무 것도 없어, 난 이제 몸뚱이만 남았어. 걸어 다닐 수도 없어. 죽어야 편하게 누워있어. 가을에 고사 지냈지. 무말랭이가 햇별이 안 들어서 썩을까봐 걱정이야. 이제는 다들 나가고 큰며느리랑 집만 보는 거야. 공장이 네 개야. 자식들은 돈을 더 벌려고 해. 돈 자꾸 벌어서 뭘 해, 한 평에 300만원, 400만원인데 자꾸 벌어. 나도 돈 벌 때 마차 끌다가 소 장사 했어. 청주, 뱀내장, 전라도, 대천, 서산이나 다 다녔어. 소

팔면 두 마리 팔면 80원 벌어. 땅을 만 평 샀어. 소장사를 하니까 돈이 넘쳐서 여자들이 많았어. 나도 그거 좋아해. 인천 시악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밤 새 때려먹고 이 집 먹고, 저 집 먹고 그랬어. 첩도 있었는데 살다가 떼어 버렸어. 우리 본 마누라는 내가 마누라를 얻었거나 군소리가 없어. 밤에는 아버지가 있어서 몰래 들어와서 자고, 아침이면 마차 끌고 나가는 거야. 마차벌이도 좋았어. 여기 와서도 인천을 짚을 팔러 다녔어, 마차에 짚을 싣고 가을부터 눈이 녹아도 마차로 소 한 마차면 40원, 50원이었다. 내가 전부 농사짓고 그랬다. 짚장사는 겨울에 가는 거다. 마차가 여러 벌 있었다. 인천으로 아침 새벽 3시에 떠나 인천가면 흰해져. 인천 시내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가면 대국 사람들이 인천 석바위에 쭉 나와서 사갔어. 중국사람, 한국사람들에게 팔았어, 짚만 팔았어. 그 짚들로 지붕 이영하고 소먹이고 중국사람들은 짚으로 채소 덮어, 아버지가 여물 썬주고 나는 소만 끌고 농사 지러 다녔다. 동생들도 장가 보냈어. 뱀내장도 다녔지.

우리마누라 88살에 죽었어. 나보다 3살 더 먹었어. 여자들은 일 안했어. 밭을 매도 혼자 매었어. 나오면 들어가라고 했어. 집 사람이 사람이 상냥하고 마음이 좋아요. 그래도 그 할머니한테 정이 없었어. 술집 시악시만 밝혔지, 저녁마다 나가서 먹었어. 술 한 잔에 5전인데 안주가 괴기 이만큼씩 한 게 거저야. 뭐든지 술만 먹으면 안주는 그냥 먹는 거야. 잔뜩 해먹고 사는 거야. 조기도 이 만큼한 것을 썬 놓고, 한번은 이북 가서 25일 만에 나왔어. 한 달 만에 있었다. 거기 기생들이 소리도 잘하고 여기보다 상냥하고 그랬어. 돈을 잔뜩 가져 간 걸, 인천에서 12명이 돈 가져간 걸 다 황해도 가서 청진에서 다 빼앗겼어, 평양여자들이 소리 잘하고 상냥해. 황해도 갔을 때가 21살에 들어가서 그때는 젊어서 재밌게 살았어. 돈은 맘대로 내가 썼어. 내가 돈을 가지고 살림했어. 내가 잔뜩 가지고 했어. 아파서 들어 누워보지 않았어. 감기도 없었어. 아프면 일을 더해. 그래야 몸이 풀려. 일 무척 한 사람이야. 갈 때 가야지, 매화리 장낙골, 양지편, 신천리, 금바위 은행동 친구들이 다 죽었어. 망할 놈들이 다 죽었어, 가뭇말에 영대야 내가. 좋은 친구들이 다 떠났어. 친구들이 관광 다니면, 설악산 가면 소주 여섯 박스를 실어도 유병화가 회장인데, 45명이 회원인데 하룻밤 자고와도 여섯 박스 한양지기를 그냥 마셨어. 그걸 마시고 마셨어. 지금은 술 한 잔 가지고 둘이 먹고 셋이 먹지만.

지금도 술 먹을텐데, 병원에서 의사가 오래 사시려면 약주 드시지 말라고 하고 술 끊은 지가 3~4년 돼. 그전에는 양지기로 먹었어. 담배, 술 끊었어. 오래 사시려면, 누가 먹으면 먹고 싶어죽겠는데, 하루라도 더 살려고 남 술 먹는 거보면, 먹고 싶지만 죽을까 봐 안 먹지. 올해라도 더 살려고, 답답해서 나온 거야. 먹을 거는 많아. 과자 빵, 사탕도 사와서 많이 먹지. 애들이 손주가 잘해. 판 사람들도 사오고 집 안에서 가져오고, 먹는 것도 가져와. 내 동생들은 고향으로 갔어. 죽었어. 나 보다 먼저 갔어. 저기가 드러누워 있어. 용인 만 팔천 평에 집을 지었어. 화장해서 담아놔서. 부모님은 짝 항아리에 담아 누워있어. 한 켤 16명이 들어가 누워있어. 나 죽으면 갈 거야. 1,200만원 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산판이 고향에 있는데, 집안 네 자식이 팔았어. 화장해서 나갔어. 건설사 염병할 놈들이 남의 산소가를 사서 아파트를 짓는 놈이 있어. 아버지, 어머니, 마누라, 동생들 썼다가 화장해서 옮긴 거야. 작년부터 시작해서 짓고 있어, 내가 있었으면 다 때려 죽였을 텐데, 갈 수가 있어, 걸어갈 수가 있어. 애들이 못 가게 하니 못가지. 웬 못된 놈이 있어. 염병할 놈들이 있어서, 잘 살지를 못해. 귀신양반들이 가만 안둘 거야.

예전에 짚을 팔면 40원 주면 손을 항아리에 집어 넣어, 며칠 항아리에 넣었다가, 항아리에 놓았어. 돈을 갖다 주면 꼭 넣었다가 논을 맘 흔하게 쓰고 우리 마누라는 항아리에 돈을 넣어둬. 내가 쓸려면 항아리 채 번쩍 들고 와서 땅을 사고 그랬어. 우리 마누라는 아버지가 계시면 막걸리, 그런 거를 아침에 진지 잡수실 때 드리고, 술을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매일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잘했어. 나한테 안했어. 아는 나가서 먹으니까. 골패놀이를 하러 동네사람들이 오면 깨끗이 밥을 해드리거든. 효자, 효부라고 했어. 이름 지었어. 동네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가지를 앓고 밥을 해드리니까. 군소리 없이 밥을 해드려서 효부라고 했어. 배 고프는 사람들 불러서 막걸리 한 사발 불러서 먹이고, 막걸리 먹이고 그런 사람 없어. 동네 박금산이라고 밥거리 없는 사람이 죽었어. 장사를 치루고 뭐 먹여야 하잖아. 동네 사람들 상여매고 일한 사람들 먹여야 하는데, 술 한 잔, 밥이 없었지. 내가 우리 마누라 보고 쌀 두 말 퍼다가 밥을 해서 장사지내는 사람 50여 명이야, 장사지내고 사람들이 가려고 해. 그래서 다 이리 오라고 해서, 밥을 한 솥하고 내가 먹을 것을 사와서 대접을 했다. 맥네가 신세를 지었다고, 우리 포도나무 농사를 해

도 세 떼기 만날 손질하는데, 부인네가 맨날 와 품값을 주면 안 받아. 그 사람도 엇그제에 죽었어. 남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 동네 어른들 거둬드리고 덕을 쌓아서 잘 되시나봐요. 내가 한 마디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잘했어. 마누라 속상해 보지 않았어. 자기가 다 했어. 내일은 내일이고, 자기 일은 자기 일이었어. 집 뒤란에 술을 숨겨두었다. 포도밭 500평, 1,000평, 800평이야, 2,300평이야. 포도 하루 파는 게 1,200만원 팔았어. 세떼기 땅인데 한 관에 만원씩인데 그렇게 팔았어. 이곳 팔고 농사가 많았어. 포도를 2관, 3관 길에서 팔았어. 신작로 앞에서 사람들이,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팔았어. 사람을 안 썼어. 포도 따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는 골짜만하고, 내가 밥 먹고 따고, 구루마로 600평 따고, 여기 따고, 저기 따고 그랬어. 애들은 학교 다니고 그랬지. 포도밭하고 농사짓고 했다. 다 심어서 하는 거야. 포도 소독해야지, 순 질러야지, 호라시가 못해요. 겉가지 잘라야지, 순 나가는 몇 매디 두고 떼매야지, 약해야지. 손이 여러 번 해, 딸 만해, 포도는 잘 따지, 며느리가 팔면 싹 팔아. 금바위에서 몇 켤짜 가져다 팔았어. 그래가 다 팔아서 가지고 개가 재미있었다. 며느리가 제가 팔고 있지. 나는 일만 죽도록 했어. 포도 따도 재미없어. 나는 얼마 팔았던 말도 없고 그랬어. 포도밭에 일꾼이나 한가지지.

20) 이○○

- ▣ 성 별 : 여
- ▣ 나 이 : 80세
- ▣ 거주지 : 가대말
- ※ 성명 공개를 원치 않음

22살에 방산동 고잔에서 시집을 왔다. 남편은 1남 1녀의 외아들 장남이었다. 어머님이 남매를 나았다. 나는 결혼해서 아들 2, 딸 4명 나았다. 이 동네는 유 씨 판이야. 처음 시집왔을 때 마을은 지금 있는 공장이 아니라, 다 집이었어. 30여 가구가 있었다. 집터 하나 팔아 공장 짓고 그랬다. 남편인 유병

춘 어르신이 법대를 나와서 그럭저럭 살다가 국회의원 선거하면 도와주다 아무 혜택 없고 일꾼 두고 어렵게 살았어. 그 양반이 병들면서 우리 집터가 나서 심이 켜다. 목장은 안했다. 포도밭은 많이 했다. 큰아들, 작은 아들 대학교 가리켰다. 둘째, 막내 고등학교 나왔다. 아버지 돌아간 뒤에 상속을 큰 아들이 줘서 집에서 다니는 대학 다녀서 취직했다. 포도밭 4떼기야. 300평, 799평, 800평, 1,200평짜리. 일꾼도 두고 애들 학교 나오면 경운기 끌고 나오면서 해서 포도밭 했을 때 등록금이 50만이었어. 3명이었는데 등록금 마련하고는 이제는 됐다. 아들 54살, 그 뒤 56, 58살이었다. 앞마당이 있어서 차일치고 포도 따다가 산더머니처럼 20킬로짜리 포도를 깡으로 가져갔다. 인천 쪽으로 가져갔다. 일만 무서워서 신경 안 켜어, 어르신이 가지고 다니셨어. 어디 붙이고 그랬어. 나는 일만했어.

6.25는 친정에서 겪었다. 나는 16살인데 비가 하도 안 오다가 어디서 꾸릉꾸릉해, 미꾸리에 감자를 캐서 왔어. 소래 다리에 피난민이 밀려와. 우리 집 방산리 고잔에도 사람들이 몰려와 수군수군하더니 피난민이 난리 났다고 오더라. 김포에서 연척 찾아오더라. 보리짚을 꿸여 피난민을 밥을 삶아서 다해 먹여, 나는 우리 삼촌댁이 힘들다고 하더라. 피난 안 갔어. 1.4후퇴도 안 갔어. 거기는 피난곳이야. 사방 10리가 찾길 안 닿는다. 검둥이도 없어, 못 들어와 폭탄 안 떨어졌어. 밤에 뒤란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들여다보면 검은 게 획 지나가. 뒤쪽에 인민군이 있어서 물을 들여다보면 폭탄이 날아가는 게 들여다보여. 저기 폭탄이 날아간다고 그러고 살았어.

중매를 하고 살았어. 한나라당 선거 운동을 해줬다. 할아버님 돌아가신 것 75세에 돌아가셨어, 한 살 차이야. 살만큼 살았다고 하더라고 한번가면 움도 없고 썩도 없어, 이제 깨달았는지 기가 막혀 이제 알았어, 힘이 없어 하니까 한번 가면 끝이야. 내 생각이 그래. 어디가면 갔다 가도 오는데 이제 가면 끝이야. 세월이 끝이야.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 들어 보고 싶으니 보나. 사람 사는 게 뭐 이런가 그래 철부지가 돼서 죽으면 자식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야. 자기 짝이 차면 자기가 어려워야 찾아오지 저희 살 생각하고 그렇지 돈 있으면 택시타고 다니라고 그러고.

당이 있어서 못 먹어. 동네 분들이 먹을 걸 가져와 더러 사오기도 해 고기는 먹어도 괜찮았는데, 친구가 아니고 동서들이 모두 죽었어, 친목회가야 친

구야. 가대말 유 씨 영감은 잘 아는데 유씨, 박씨, 김씨, 등이 있었다. 당고사는 안 지냈다. 어머니 때 그런 거 있었다. 그네 매는 것들 못 봤다. 두레는 없었다. 가대말이 왜 가대말이냐면 배가 여기가 닫는 데라서 옛날에 저기가 논이 아니고 갯바닥이었다. 그래서 배가 닿아서 가대말이다.

대보름 때 놀았다, 저희들끼리 놀았다. 소래국민학교, 소래중학교, 고등학교, 인천으로 갔다. 딸도 인천, 둘째 인천, 셋째 인천, 네 째 안양여교, 여섯 명 주머니에, 직장 가서 만도기계 들어가서, 첫 월급 30만원에 내복 사다 주고 월급 탄 거 갖다 주어서 둘째, 셋째 공부를 가르쳤어. 지금 인도가 있다. 만도기계에서 회사를 거기에 맡겼어. 우리 애들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은 우등상이다. 소래초등학교 모범상, 우등상, 개근상 타고 6개 탔어, 둘째 수원에서 선생이고 처는 초등학교 선생이야. 저희 밥해먹기도 힘들어, 할머니는 두 주일 한 주일에 한 번 봐. 모냥 봐도 밍지 않고 싫지 않고 한 게 자식이야. 오면 반갑고 가면 서운해. 공장 세를 잘 안줘, 이번에 큰아들 손주가 제대하고 와서 왔는데 그 집에서 안줘서 5만원 줬어. 둘째 아들은 아침에 어려우니까 열무김치를 한 달을 싸 줬어. 벤토를 6개 놓고 다 못 먹었어. 둘째 아들이 엄마 차 돈을 싸놓고 주면 받아서 가져가. 어느 추석날 빗자루를 가져오더니 위를 쓸어 그러니까 돈이 우수루 떨어져 엄마가 찾 돈 주는 거 대들보에 엮어 놓았던거야. 동전이 한 움큼이 나왔어. 애는 돈을 쥐도 낭패가 없는 애다. 소래중학교 다닐 때 검바위로 걸어갔데. 그 돈을 도로 줬어 기가 막혀, 할아버지가 더 줘 그래서 더 줬어, 착실해, 이 나무 다 빼겨 주고 나무보일라 만들어 주고 그런 일을 해 처음에는 내가 힘이 있어서 기분 좋아. 불 때면 기분 좋고 석유가 덜 들고 좋았는데 지금은 힘들어, 녹음하지 마.

일이 있으면 고추를 따거나 하면 취미로 하는데 가을 동지 설달이 넘어가야 뜨듯해지지. 우울증이 생겨. 자녀들이 오면 좋아. 한 10만원 주고 싶은데 몇 번 갔는데 군대 가서 제대하니 부모는 인도가 있지 내가 거둬줘야 할 텐데. 몇 년 있었으니까 자라서 키가 커 졌어. 제 어미가 사주겠지, 그래도 걱정이야. 날이 우죽하고 그러면 맘이 쓸쓸해 봄날 되면 좋더라고. 새싹 보러 나가 자식들 공들여서 가꾸다가 이젠 다나가고 뭘 가꿀게 있어 밥 한술 떠먹고 감자눈깔 나면 뚫고 해놓은 이 애가 캐가고, 저애가 캐가고 좋아해. 김장해놓고 사람하나 얻어서 김장했어. 몸만 건강하면 걱정이 없어 몸이 점점

약해지잖아. 나이 드니까 유모차 끌고 병원 갔어.

오늘 아침에도 추워서 혈압에 당이 있어 배추밭에 양감자라고, 애들 주려고 캐니까, 허리에서 찬바람이 나와. 비뇨기과가면 된데서 갔어. 양지편 앞까지 가서 이를 악물고 갔어, 거기 한 번 갔다 오면 힘들어, 신천리 가는거야. 병원도 없고 이 동네는 그게 없어. 동네가 아니고 공장 동네야. 사람이 없어 다 떠났어. 유충형이 조카야. 일 많이 해 굶은 일도 그 애가 다 맡아서 해. 선거도 다 맡아서 해. 유성형이 동생이다. 결혼하고 안양색시 얻어서 은행동 살아. 택시타고 가래 가고 오고 그러려면 1만원이야. 혈압약, 당약 사면 2만 5천원 들지, 비뇨기과 들지, 하루에 5만원도 모자라. 한 번은 타고 한 번을 걸어가. 당 떨어지라고 걸어와 봤어. 살려고 기를 쓰는 거지. 나 사는 데까지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심란해. 저 아래 당숙모집 90 사셨어. 사시면서 좋았을 때, 재밌을 때, 자식들 기를 때, 어른들 모시고 어른들이 예뻐하고 좋아하더라고. 처음에는 모르더니 어른이 머슴하고 며느리는 데려다가 길들이기에 달렸대. 시집오면 집안을 몇 번씩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거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야. 길들여? 그럼, 내가 머슴이야, 그런 생각이 났어. 자식을 나서 우등상을 타고, 외아들에 아들을 둘을 낳고 우등상을 타고니까, 뒤쫓아 오면서, 애미야, 애미야, 우등상 탔다 하면서 며느리를 예뻐해. 그때 좋았어. 공부 가르치고 어른들 좋아하고 애들 자라고 예뻐하니, 오공으로 곤색 스웨터를 짜서 입히면 하얀 얼굴에 예뻐어.

아버님은 돼지고기 삶아서, 광에다 술을 해서, 독에서 자박지에 걸러놓고 소쿠리에 돼지고기 삶아서 건져 놓으래. 집안네 형님들 불리서 형님 한잔, 나하나 하고 자셨어. 어디서 잡숫지 않고 집에서 드셨어, 낮에는 술 잡숫고 고구마 잡숫고 아무 걱정도 없이 사셨어. 아들 하난데 복이 많아서 땅 사놓고 도당굴에 사놓고 일 안하셨대. 배만 이래서 형님들과 한잔 들고 오면 여기서 2근 사오면 친정에서 며느리가 어디 또 있냐고 하면서 5근 사오래. 서 가져와 여기도 부잔데, 나 자랄 때도 부자였어. 지금은 부자 아니야. 어머니 74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68에 가셨어.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삼세기 사다 드린다고 선창에 가셨다가 차사고 나서 맘이 공중에 떠서 곱을 했어. 꿈을 꾸니까 집에서 뭘 막하더라. 한 삼년 사시다 중풍 맞아서 금방 돌아가셨어. 어머니 치매가 와서 곱 몇 번했어. 영감이 일을 안 해서 머슴 데리고 밭에

가서 일해, 염감은 옷 한 벌 짝 차려입고 ‘수고해’ 하고 가. 양배추 모종을 하면 취직도 안되고, 살다가 가면 자기는 잘 먹고 와. 돈은 못 벌어도, 그게 고마웠어. 살이 찌와 살이 뽀얗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집에서 못 먹든거 잘 먹고 좋아했어. 집에 돈이 안 붙어나 빚을 얻어놓고, 다니 포도 할 때가 가장 재미있었어. 일꾼을 둘씩, 아들, 영감 5명 아들은 경운기 끌고 대학교 입학금하니 좋고 딸들이 미수꾸리를 잘했다. 식구끼리 했다. 다듬는 사람 몇 얻어서 했다. 포도 안사가고 여기서 상회로 모두 냈다. 젊었어도 힘드니까 포도밭에 드러누워 있으면, 자, 저기서 포도를 다섯이 따갔네, 빨간 포도를 따갔어. 차를 타고 갔다고 했다. 자는 틈에 훔쳐갔다. 가을에 집안에 고사떡 해서 돌렸다. 안해 먹지도 안 해. 생신하는 것은 동네사람들 다 불러서 했다. 장례, 아버님 장례도 집에서 다했다. 사람이 마당이 하나 노적거리 하나 앞마당 있는 것 혈어서 배 두루마기, 배 옷들을 다 해 입혔다. 마당 하난 노란 거, 하얀 거 이 마당 하나 가득했다. 조카, 뭐야 다 입혔다. 대단했지. 3년을 옛날식으로 괴고 지었다. 3년상 상청해놓고, 아침, 저녁 3년을 다했다.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게 힘들다. 산판이 있다. 유씨 집안 우리 별도로 산이 있다. 상여, 아버님, 어머님은 상여 나갔고 지금은 차로 모신다. 상여독 없었다. 유충형 아버님 시의원했다. 시제를 과천에서 지낸다. 유병문 안골 유씨와 집안이다. 차례는 모두 와서 지낸다.

21) 길마재 이야기(길마재 마을회관)

▶ 이기선(78), 김정환(74), 김현수(75)

이기선 : 길마재에 온 지 70년이 넘었어요.

김정환 : 금천구 시흥에서 이사온지 43년 됐어요. 옛날부터 여기는 길마재라고 불렀어요. 여기 고개 넘어가는 곳이 소의 길마처럼 생겼다 해서 길마재잖아요. 안현동에서 제일 큰 동네가 길마재예요. 또 안현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유래가 있고, 김치인 묘도 있고 우물이랑 팽나무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김치인 묘는 아마 생긴지 200년을 바라볼 것 같은대요. 장희빈 당시에 생긴 거니까.

지금은 개발이 됐지만 옛날엔 팽나무에 배를 뗏다고 해요. 아, 물론 100살 넘은 노인도 모르지만... 직접 맨 걸 본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알지.

이기선 : 여긴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배태, 배터라고도 하고, 그런 마을도 있었어요. 지금은 현대마을이라고 불러요. 양지편에 있지. 거기 뗏돌에 굴껍질이 달라 붙어 있고 그랬어요. 자연네 집이라고 거기 뗏돌에 굴껍질 붙어 있고 그랬다니까요. 여기저기 갯고랑이 있던 마을이에요.

김정환 : 김치인 묘 쓰기 전부터도 우물이 있었어요. 묘를 쓸 때도 그 우물물을 썼다고 해요. 공동우물이라 4개동네가 다 먹었던거지. 40년 전만해도 먹었어요. 여긴 방죽, 보 터 놓으면 지금도 물 올라 올 걸요. 지금도 들판에 관정을 못파요. 짠물이 나와서 농사를 못지어요. 바닷물 보다 더 짜. 노르스름 한게 무지하게 짜요. 옛날 바닷물이 농축돼 있어서 그래요. 풀이 닿으면 다 죽었어요.

이 동네에서 농사 지은 건 100년 이내일 거예요. 지금은 농사 지어요. 오래 산 마을 사람들이 한 46~47세대 되는데 다 농사 짓고 있어요. 벼농사. 지금은 농사가 잘되는데 그 전엔 짠물이 들어와 잘 안됐지.

김현수 : 이 동네는 옛날부터 어려워요. 농사 아님 딴 거 할 거도 없어요. 산밧은 밭농사, 들판은 논농사 지었죠. 70~80년 전에는 벼를 손으로 훑어왔대요. 짠물이 뻘쳐서 산화되고 그랬던거지. 10년 전만 해도 물이 많이 끼어서 복토를 하고 그랬어요.

이기선 : 10년에서 15년전부터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전엔 살기 좋았지. 공장 들어오면서 인심이 사나워졌어요.

김현수 : 옛날엔 여기를 송내동이라고도 했다고 들었어요. 길마재 같은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소나무가 무척 많았대요. 김치인 선생 산소가 여기 있잖아요. 대대로 정승을 했던 양반이에요. 한강을 건너가려고 마포나루에서 배를 탈 때 길마재에서 왔다면 먼저 태워주고 그랬대요. 김치인 선생 권력을 써서. 장락골, 길마재, 배태 세 동네는 다 배가 들어오던 자리에요.

김정환 : 이 동네 인구가 예전보다 늘긴 했는데 공장이 들어와서 그런거예요. 낮엔 거주하고 밤에 빠지고 그런거지. 거주 인구를 확실히는 몰라요. 계속 거주하는 농민세대는 큰 변화가 없어요.

길마재에서 2km를 걸어서 소래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사방 20리서 다닌 거지. 도창, 계수, 포리까지. 겨울엔 흰 눈 쌓여도 맨발로 다녔어요. 배고플 때예요. 우리가 소래초등학교 한 28회 정도 되지요.

김현수 : 나는 길마재 토박이인데 여긴 우리 광산 김씨가 대대로 살아왔어요. 지금은 성씨가 각성이에요. 예전에도 집성촌은 아니에요. 각성받이지. 양지편에 이씨가 많았고 가대말은 유씨가 많아서 유씨동네라고 했어요.

김정환 : 김치인묘는 이장 얘기가 있어요. 후손이 팔았다고 이장 얘기 하는걸 들었어요. 1100평 조금 못 돼는데 그 산이 팔렸다고 하더라고. 우리집이 산소서 제일 가까워요. 김치인 묘는 잘못된 게 있어요. 시 보물 1호인데 산소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도 없이 꼭 틀어박혀 있어요. 학생들이나 더러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집으로 많이 들어와. 찾다 찾다 잘못 찾고 오는 거지.

김현수 : 우리 동네 우물은 역사가 오랜 우물이야. 우물고사를 7월 칠석에 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했으니. 떡하고 돼지고기 사다가 우물에 절하고 떡실컷 먹고 동네 잔치처럼 하루 보내요. 50년 전 얘기에요. 집성촌 같으면 계속 지낼텐데 각성받이들이 의견이 안맞아 안 지냈을 거예요. 수도 들어오면 서부터 허드레물로만 쓰고. 10여년 전까지만 물을 쓴 거지. 지금도 물은 잘 나와요. 좋아요. 도토리 앙금이 다른 물로는 안 앓아도 그 물로는 잘 앓아요. 간장 담그는 물도 그 물로 하고. 김치인 산소 쓸 때도 물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했는데 충분히 썼대요.

김정환 : 현재 경작하는 논은 2만평, 그 정도 되죠. 옛날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 남은거야. 공장이 들어와 공해랑 소음이 심하고. 도로가 아주 좁아서 불편해요. 생활 형편은 나아졌는데, 세받고 인구 많아지니까. 인구 많아지면 하다 못해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길 확장이 우선 필요해요.

이기선 : 여기서 안양, 부천 다니는 길에 버스 안내정보서비스 안현동만 없어요. 버스 간격이 너무 길고, 여기서 산업도로로 나가는 차들이 평균 6~7대는 밀려 있어요. 공장이 많으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차가 1천대는 될 것 같은데.

김정환 : 우물은 71년 5월에 보수를 하면서 현재 모양이 됐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고, 시멘트지만 우물 아래는 돌로 돼 있고 둥글어요.

▶ 하창분(82), 박유분(87), 민익순(84)

하창분 : 길마재서 산지 오래 되고 말고요. 부천 옥길리에서 시집와 산지 60년이 넘었어요.

민익순 : 나는 김포에서 나고, 은행정 살다가 작년 8월에 여기로 왔어요. 보금자리 때문에 철거됐으니까.

박유분 : 태어난 건 대야동, 이리 시집 온 거지

하창분 : 처음엔 이 동네가 50호가 넘었어요. 그래도 나간 사람이 많지는 않지. 아직도 본토민이 많아요. 가뭇말은 아파트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길마재는 왜 길마재인지 자세히 몰라요. 소가 길마져서 길마재인지. 길마고개에 가면 상여가 못갔어요.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마을이 천 번 바뀌었어요. 옛날엔 오막살이었지. 밤에 명석 펴놓고 옥수수, 호박 찌 놓고 먹고 놀았는데, 시방은 문 닫고 들어가면 안나와요. 시내 사람이랑 똑같아. 정월이면 집집마다 땡기면서 놀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장난 심한 사람은 오곡밭도 훔쳐오고. 힘들게 살았으니 그때가 좋지는 않았어도... 정말 오래된 팽나무가 있는데 애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했는데, 집집마다 네 다섯 명씩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올라갈 애도 없어. 애들이 다닥다닥 팽나무에 붙어 있고 개울에 물이 철철 내려가고 그랬지요. 깨끗했어요. 그 물에 배추 씻고 광목 빨아 넣고. 그때는 주로 논농사 지었는데 지금은 다 공장이에요.

길마고개는 가팔랐어요. 지금은 깎아서 그렇지. 고개 넘으면 옛날에 방앗간 있었고, 구멍가게도 있고. 방앗간은 몇 십 년 전에 없어졌어. 무척 오래된 거였는데. 네 동네 사람이 거의 다왔어요. 방앗간이 꼭대기에 있었어. 신천리에도 하나가 있었고 그 후에 장락골에 방앗간이 생겼고 그렇지요. 만신 할머니가 우물 앞에 살아서 고사는 노상 지냈어요. 떡을 네모 반듯하게 썰어서 갖다 놓고 빌었어요. 칠석날 우물치고 고사하고.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물이 많이 나왔어요. 시방은 더 나와. 물 맛 좋고 때도 잘 져. 옛날에 사람 하나 다닐 정도로 길이 좁은 동네예요. 소가 등에 길마를 얹고 벼단을 져내거나 지게로 벼단을 져내고 그랬어요. 새마을운동으로 경운기 다닐 정도의 길이 된거지. 지금도 다른 동네보다 길이 좁잖아요.

3. 수 집 자 료

1) 매화신문(매화교회 발행, 창간호~제121호, 1997~2007)

발행일	발행호	헤드라인	비고
1997. 2. 2.	창간호	창립 45주년 맞은 매화교회	
1997. 3. 2.	제2호	매화동 총인구 9,101명 (매화7,893명 도창663명 금이545명)	
1997. 4. 6.	제3호	인간복제실험 저지운동 확산	
1997. 5. 4.	제4호	북한 먹거리 해결에 모두 동참하자	
1997. 6. 1.	제5호	사랑의 헌혈에 적극 동참을	
1997. 7. 6.	제6호	3년 후에 매화 주민수는 3만 2천	
1997. 8. 3.	제7호	매화초등학교 건립 추진 (도창초등학교 증축만으로 감당키 어려워.)	
1997. 9. 7.	제8호	전세 확정일자 부여업무 동사무소서 시행	
1997.10. 5.	제9호	매화동 외곽 순환도로 개설 확정	
1997.11. 2.	제10호	매화동 환경파괴 심각 (계획적인 도시설계와 환경파괴에 대한 정부대책 시급)	
1997.12. 7.	제11호	매화동 시민공원 착공	
1998. 1. 4.	제12호	매화동 교통대책 개편 추진 (인구증가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 필요)	
1998. 2. 1.	제13호	매화 백일장 성료 (최우수상인 으뜸상에 전선화씨)	
1998. 3. 1.	제14호	동민 화합 체육대회 개최	

발행일	발행호	헤드라인	비고
1998. 4. 5.	제15호	매화 초등·중학교 2001년 개교	
1998. 5. 3.	제16호	매화동 교통체계 개선 시급 (등하교시 경찰관 배치 필요)	
1998. 6. 7.	제17호	매화동 시의원에 김용훈씨 당선 (도의원과 시장에 이경영, 백청수 후보 당선)	
1998. 7. 5.	제18호	매화동 주거단지 주변 산림 훼손 심각	
1998. 8. 2.	제19호	‘동민 공동체 의식’ 절실하다 (불법주차, 도로에 하수방류등 심각)	
1998. 9. 6.	제20호	도창동 ‘버스 노선 연장’ 공방 가열	
1998.10. 4.	제21호	매화동 시장 바구니 물가 높은 편 (재래시장 개설이 시급한 과제)	
1998.11. 1.	제22호	도창동 까지 버스 연장 운행	
1998.12. 6.	제23호	재래시장 신설 시급 (지역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	
1999. 1. 3.	제24호	매화동 공동묘지 공설화 된다	
1999. 2. 7.	제25호	장락동 주민(안현동) 민원 업무 매화동 이용이 바람직	
1999. 3. 7.	제26호	매화지역 보선 유권자 8,574명 예상	
1999. 4. 4.	제27호	국회의원 보선에매화동 주민 3천1백22명(36.4%) 투표	
1999. 5. 2.	제28호	제2경인고속도로-수인산업도로간 양지인터체인지 개설 필요	
1999. 6. 6.	제29호	산림훼손·주차무질서·쓰레기방치 등 공동체 동민 의식 상실 커	
1999. 7. 4.	제30호	생활폐수로 썩어 가는 호주별 수로를 살리자	

발행일	발행호	헤드라인	비고
1999. 8. 1.	제31호	인구, 차량증가 등 외곽순환도로 개설 시급하다	
1999. 9. 5.	제32호	빨라야 내년 3월 정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 선정	
1999.10. 3.	제33호	지역주민화합에 중점 매화동장에 방진호씨 부임	
1999.11. 7.	제34호	소래포도와 함께 '호주별쌀'을 브랜드화 하자	
1999.12. 5.	제35호	연말연시 불우이웃에 우리의 손길을 펴시다	
2000. 1. 2.	제36호	새로운 2000년 매화동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2000. 2. 6.	제37호	매화동의 주민숙원 사업 주민자치 복지회관 건립된다	
2000. 3. 5.	제38호	지역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행정이 절실하다	
2000. 4. 2.	제39호	우리 손으로 매화동 경제를 살리자	
2000. 5. 7.	제40호	모내기철인 5월에는 호주별 농로 차량 통행을 자제하자	
2000. 6. 4.	제41호	9월부터 매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2000. 7. 2.	제42호	2002년3월 개교 예정인 매화초등학교 설립 계획대로 추진	
2000. 8. 6.	제43호	매화동 도로개설 계획대로 추진 안돼	
2000. 9. 3.	제44호	10월26일 매화동 시의원 보궐 선거	
2000.10. 1.	제45호	위원장 남인택, 부위원장 박인순 매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2000.11. 5.	제46호	최태근 후보 매화·과림동 시의원 당선	

발행일	발행호	헤드라인	비고
2000.12. 3.	제47호	매화초등학교 부지 버스 종점 주변 지역으로 결정	
2001. 1. 7.	제48호	공용 주차장 시급하다	
2001. 2. 4.	제49호	매화동 277번지 일대 매화중학교 2003년 개교	
2001. 3. 4.	제50호	매화소공원 입구가 어딘가요?	
2001. 4. 1.	제51호	내년 안에 완공 될 예정 매화동 중심 도로 확장	
2001. 5. 6.	제52호	6월 실시설계 완료 매화초등학교 2001년 9월 착공	
2001. 6. 3.	제53호	농번기에는 농기계에 양보하자 농로인가 차로인가?	
2001. 7. 1.	제54호	도창초교등 계획 지연으로 주민 불편 우려 된다	
2001. 8. 5.	제55호	38번 버스는 찜통 버스! 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	
2001. 9. 2.	제56호	매화초등학교 설계안 확정 언제나 지어질 수 있을까?	
2001.10. 7.	제57호	재난 대책 마련하라	
2001.11. 4.	제58호	매화동 38번 노후 버스 모두 교체 된다	
2001.12. 2.	제59호	매화동에서 생산한 쌀은 매화동에서 소비 하자	
2002. 1. 6.	제60호	포동~매화동 경유 소사까지 30M 도로 개설 2005년 완공 예정	
2002. 1.27.	제61호	매화초등학교 건축 공사 시작 한다	

발행일	발행호	헤드라인	비고
2002. 3. 3.	제62호	하나 되는 동민 의식 절실하다	
2002. 4. 7.	제63호	매화동 오수관거 정비 사업	
2002. 5. 5.	제64호	축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물왕예술제 열린다	
2002. 6. 2.	제65호	매화동 대중교통 문제 해결 시급하다	
2002. 7. 7.	제66호	화합 하고 단결할 때다	
2002. 8. 4.	제67호	도창 복지 문화센터 본격 운영	
2002. 9. 1.	제68호	매화초등학교 3월 개교를 앞두고 공사 열기 뜨겁다	
2002.10. 6.	제69호	매화중학교, 고등학교 설립 추진 지연	
2002.11. 3.	제70호	아름다운 매화동 가꾸기 한창	
2002.12. 1.	제71호	매화동 교통환경문제 종합적인 대책 및 개선 시급하다	
2003. 1. 5.	제72호	‘2003’년 매화동 이렇게 달라 진다	
2003. 2. 2.	제73호	39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 공사 추진 된다	
2003. 3. 2.	제74호	시흥시장과 함께 한 ‘03년 신년 인사회’	
2003. 4. 6.	제75호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재정비중, 곧 결정 고시 예정	
2003. 5. 4.	제76호	매화동 외곽도로 토지 보상 시행 중	

발행일	발행호	헤드라인	비고
2003. 6. 1.	제77호	매화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급하다	
2003. 7. 6.	제78호	매화중학교 설립 부지와 테마공원 신설 부지에 대한 논란 가열	
2003. 8. 3.	제79호	매화초등학교 9월 1일 개교 한다	
2003. 9. 7.	제80호	축! 매화초등학교 개교	
2003.10. 5.	제81호	매화 중학교 설립 부지 확정	
2003.11. 2.	제82호	매화동에 소방파출소 유치, 2005년 개소 목표 추진 중	
2003.12. 7.	제83호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추진 상황	
2004. 1. 4.	제84호	월곶~조남간 '동서로'부분 개통	
2004. 2. 1.	제85호	매화동 신년 인사회 개최	
2004. 3. 7.	제86호	매화초등학교 통행로 확보 시급	
2004. 4. 4.	제87호	매화동에 공공도서관 설립 절실하다	
2004. 5. 2.	제88호	제3회 매화축제 개최 예정	
2004. 6. 6.	제89호	매화중학교 개교, 예정대로 진행	
2004. 7. 4.	제90호	장마철, 도로 개설 지연으로 주민 불안	
2004. 8. 1.	제91호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2009년 완공예정! 매화동 주변 철도, 도로망 확충 계획 및 지역성장 가능성을 점검한다	
2004. 9. 5.	제92호	목감, 장현지구 임대주택 택지개발계획 매화동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발행일	발행호	헤드라인	비고
2004.10. 3.	제93호	매화동장 평균 재임 기간 9개월	
2004.11. 7.	제94호	주민센터 프로그램 25%만 긍정	
2004.12. 5.	제95호	매화동 노인정 어르신 여가 활용 대책 필요	
2005. 1. 2.	제96호	매화동 현안사업 추진 시급하다	
2005. 2. 6.	제97호	매화동 2005 신년 인사회	
2005. 3. 6.	제98호	주민화합 노력 뜨거웠다	
2005. 4. 3.	제99호	매화동 비전 2010을 진단한다	
2005. 5. 1.	제100호	‘제4회 매화마을축제’ 개막	
2005. 6. 5.	제101호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의 장 마련	
2005. 7. 3.	제102호	도창초등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 거행	
2005. 8. 7.	제103호	매화동 숙원사업 속 시원하게 해결 할 수 있을까?	
2005. 9. 4.	제104호	‘실버봉사단’ 동사무소 안내도우미로 나섰다	
2005.10. 2.	제105호	매화동 한마음축제 개최	
2005.11. 6.	제106호	매화동 호조별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2005.12. 4.	제107호	사회복지 법인 행복세상 엘림요양원 증,개축 준공식가져	
2006. 1. 1.	제108호	매화중·고등학교 2008년 개교목표 민간자본유치 사업으로 추진	
2006. 2. 5.	제109호	매화교회 비전센터 신축 기공 감사 예배	
2006. 3. 5.	제110호	1365 나눔터 매화점 재개장	
2006. 4. 2.	제111호	매화동 치안 문제 심각 하다	

발행일	발행호	헤드라인	비고
2006. 5. 7.	제112호	어린 생명 앓아간 도로 혼잡 해결 해야	
2006. 6. 4.	제113호	5.31 지방선거 당선자와 공약을 점검한다	
2006. 7. 2.	제114호	매화마을 축제 성황리에 마쳤다	
2006. 8. 6.	제115호	봉숭아 축제 커간다	
2006. 9. 3.	제116호	사랑의 포도 나누기 10년째 영글어 간다	
2006.10. 1.	제117호	이연수 시장 주민과의 간담회 가져	
2006.11. 5.	제118호	시흥매화초등학교 한빛체육관 개관예정	
2006.12. 3.	제119호	매화동의 풍성한 문화 축제	
2007. 1. 7.	제120호	매화고등학교 2009년 3월 개교 확정	
2007. 2.11.	제121호	매화동 신년 인사회	

2) 극단 기린(공연 관련 자료)

일련 번호	내 용	비고
기01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극 성(聖) 가족 (열한번째 정기공연)	2007.05.18~06.10
기02	육감을 뛰어넘는, 제 칠감	2011.09.16~09.25 (KPU아트센터) 2011.10.05~10.16 (가변극장 키작은 소나무)
기03	히히히(원제, 마술가게) (열아홉번째 정기공연)	2010.12.01~2010.12.12 (KPU아트센터)

일련 번호	내 용	비고
기04	청문(聽聞) (스물다섯번째 정기공연)	2012.11.28~12.02 (시흥시 여성비전센터) 2012.12.04~12.16 (연우소극장)
기05	성(聖)가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	2011.05.04~05.15 (KPU아트센터) 2011.05.18~06.19 (공간 아울)
기06	기도(원제, 동학) (열일곱번째 정기공연)	2009.10.29~11.15 (KPU아트센터)
기07	세븐 센스(The 7th Sense) (아홉번째 정기공연)	2006.10.26~10.29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06.11.15~12.17 (정보소극장)
기08	2011 뮤지엄 파크 페스티벌 이색소품, “두가지 색의 바람에 거닐다”	2011.08.27~08.28 (경기도박물관 일대)
기09	아레오바고 오픈 기념공연 하녀들(Les Bonnes)	2002.07.12~07.14 (아레오바고)
기10	얼굴, “천개의 표정” (열세번째 정기공연)	2007.12.22~2008.01.06 (KPU아트센터)
기11	가족뮤지컬, 달맞이꽃을 찾아서 (열여섯번째 정기공연)	2009.04.24~05.10 (KPU아트센터)
기12	제9회 김천 전국가족연극제	2011.07.26~08.04 (김천문화예술회관)
기13	가족뮤지컬, 달맞이꽃을 찾아서 (열여덟번째 정기공연)	2010.08.26~09.12 (KPU아트센터) 2010.09.30~10.02 (PB아트벨리 예술극장)

일련 번호	내 용	비고
기14	황금깃털의 비밀 (스물네번째 정기공연)	2012.10.18~10.21 (시흥시 여성비전센터) 2012.10.25~10.27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기15	라이브 가족 뮤지컬, 달맞이꽃을 찾아서 (판소리 사설본 수록)	2004.12.16~12.26 (덕양어울림누리 고양별모래극장)
기16	LIVE 가족 뮤지컬, 달맞이꽃을 찾아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기념공연)	2002.11.15~12.05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기17	내 친구, 체브라시카	2003.10.30~11.12 (코엔스 그랜드컨퍼런스 홀) 2003.12.05~12.28 (대학로 행복한 극장)
기18	소리로 보는 연극, 음(AUM)	2008.05.01~06.01 (스튜디오76)
기19	나는 인간이다 (작은극장 개관기념 레파토리 4)	2003.09.10~09.28 (작은극장)
기20	들리세요, 침묵 너머의 소리, 음AUM (열네번째 정기공연)	2008.03.21~04.06 (KPU아트센터)
기21	얼굴 2008 - 결과 속 - (열다섯번째 정기공연)	2008.10.08~10.26 (KPU아트센터)
기22	성(聖)가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 (스물여섯번째 정기공연)	2013.06.13~06.15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2013.06.19~06.23 (인천아트플랫폼) 2013.06.26~06.30 (시흥시 여성비전센터)
기23	청문(聽聞), 죽지 말고, 죽여라! (스물두번째 정기공연)	2012.01.10~01.15 (KPU아트센터) 2012.02.01~02.19 (연우소극장)

일련 번호	내 용	비고
기24	환경교육뮤지컬 비즈 버즈(Bees Buzz)	2012.06.12~06.17 (시흥시 여성비전센터) 2012.06.25~07.01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기25	황금깃털의 비밀 (제27회 정기공연)	2013.10.04~10.06 (시흥시 여성비전센터)
기26	아레오바고 제1호	2007.09.22
기27	아레오바고 제2호	2008.03.04
기28	아레오바고 제3호	2008.10.01
기29	아레오바고 제4호	2009.04.19
기30	아레오바고 제5호	2010.05.28
기31	아레오바고 제6호	2012.07.20

3) 동네문화놀이터 “툼”(매화동 문화운동공동체 ‘이공’)

일련 번호	내 용	비고
툼01	2008 매화동 동네문화놀이터 툼 청소년 공공문화 프로젝트 모모의 진(Zine) + ○○공간을 만나다	2008.04~12
툼02	툼새의자 (떠들썩한 모모들 2호)	2009.10.10 떠들썩한 모모들 편집팀

일련 번호	내 용	비고
툼03	동네문화놀이터 톼 소식지 2010년 4월	2010.04.19 문화공동체 이공
툼04	기억의 서랍을 열다 (매화동 사람들이 개인사책 보고서), 174쪽	2008.12.27 문화공동체 이공
툼05	2010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마을학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마을학교 매개자 교육 자료집), 134쪽	2010.01~12
툼06	떠들썩한 모모들	2008.12.27 문화공동체 이공
툼07	7회 굴러가는 이야기 베틀시장 (삼화아파트편), 되살림가게 쓸모	2009.10.10
툼08	제1회 어린이 동네사진전 아홉명의 이야기	2008.11.22
툼09	2007년 시흥지역 미디어 교육 활동가 양성 워크샵 자료집	2007.06.30
툼10	2008 문화운동공동체 이공 활동보고서 (2008 매화동 동네문화놀이터 톼), 399쪽	

4) 기타(매화교회 관련 도서자료)

일련 번호	도 서 명	비고
매01	매화교회 오십년사(1951~2002년)	2002.01.27
매02	창립 60주년 기념 매화교회 화보집	2012.01.29

1997년 포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매 화

MAE HWA NEWS LETTER

이달의 성경

말라기 1:1-14
말라기 2:1-14
말라기 3:1-14
말라기 4:1-14

매화교회 매월 첫째주 발행 창간호 발행인-여용용목사 편집인-이문형 인쇄인-김재문 주간-함병문 발행처-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250-1 ☎(031)693-9732 FAX: 694-1708

창립 45주년 맞은 매화교회



지금도 사라진 부지교회본문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

- 신앙의 항주지 45년만에 복음의 중심지로 -

매화교회가 창립한지 4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앙의 항주지입니다. 45년 전인 1952년 1월 31일에 세워진 이항주교회(당시 26명(남자 10명, 여자 16명))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45년 만에 신앙의 항주지로 복음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5년 전인 1952년 1월 31일에 세워진 이항주교회(당시 26명(남자 10명, 여자 16명))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45년 만에 신앙의 항주지로 복음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5년 전인 1952년 1월 31일에 세워진 이항주교회(당시 26명(남자 10명, 여자 16명))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45년 만에 신앙의 항주지로 복음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5주년기념음악회 개최

-여용용목사주례- 인천기독교총연합회주최

창립 45주년 기념 음악회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2월 2일(주일) 오후 7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이날 음악회는 여용용목사의 주례로 시작되며, 찬양, 성가, 기악,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45주년 기념 음악회 수익금 일부는 매화교회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매화강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항주 목사

대방의 새벽을 맞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깨끗한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신년성회 차분하면서도 무한한 은혜로 성료

신년성회 개최가 본교로 매화교회에서 4일(주일) 8:00에 열렸습니다. 신년성회 개최가 본교로 매화교회에서 4일(주일) 8:00에 열렸습니다. 신년성회 개최가 본교로 매화교회에서 4일(주일) 8:00에 열렸습니다.



(매화강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안내

예배명	모임시간
주일날 1부	(주일) 오전 9시
주일날 2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날 전야예배	(주일) 오후 7시 30분
수요기도회	(수)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4시 30분

예배명	모임시간
목회	목회별
찬양기도회	(주일) 오후 10시
유치부	(주일) 오전 9시
유년부	(주일) 오전 9시
중요부	(주일) 오전 9시

예배안내

예배명	모임시간
제2차인사부	(주일) 오전 11시
중요부	(주일) 오후 5시 30분
요동부	(주일) 오후 5시 30분
열린정령부	(주일) 오후 8시
별명정령부	(주일) 오후 8시

(매화강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교에의 참여

살기 좋은 매화공룡재를 '오늘, 여기에'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제정구



이성범 집사

[illegible][illegible]

강인숙 집사가죽(아들훈규, 딸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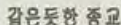
강집사님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이야기

사랑하는 아에게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고등부 통계수련활동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평신도의 입장에서 본다.



정자는 웃음을 주님과 함께 할 때 벌어지는
 원의 놀이 되어 사가도 진행현재가 되고 일하는
 기. 여기서 하나의 교훈은 어떤 일로도 능력이
 시회규범에 어긋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고 신화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비비율로
 일하는 것은 정자는 웃음을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려운 부모나 형제자매는 모르는 듯 하면서
 얼굴은 수레수현뿔을 내고 김안대소사는 등하
 나 하면서 코먹과 생일이나 절기는 꼭 챙기고
 설까지 조카 세움마 하면서 교회불나만 알레우
 는 밑들은 자신을 나태내기 위한 욕심이 강하미
 며 사미의 신자가 아닐까

◆ 매화동 소식

조선시대 양반으로는 초·초소유부(小)를 개발부(小)라는 부(小)대칭(小)지, 국(小) 또는 기(小)의(小)대칭(小)지, 관(小)계(小)형(小)에(小) 의(小)하(小)여(小) 개(小)발(小)공(小)시(小)를(小) 정(小)경(小) 공(小)시(小)하(小)고(小) 이(小)치(小)를(小) 조(小)사(小)한(小) 방(小)식(小)을(小) 조(小)각(小)개(小)발(小)공(小)시(小)의(小) 외(小)전(小)을(小) 또는(小) 이(小)의(小)전(小)을(小) 자(小)유(小)에(小) 한(小)다(小)는(小) 동(小)시(小)무(小)조(小)의(小) 외(小)전(小)을(小)한(小)다(小).

개관된 보강금 잔액(Gr. 7) 대용은 다음과 같다. 공리, 매출금들은 40원까지 30원으로 할증되었고, 공방이유, 미질, 한은, 해외여행 후유, 장물들은 종전대로 10, 40, 40, 30 원, 100원, 50원, 30원으로 그리고 전후유는 10 원까지 30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파벌이나 신치로물들은 종전대로 무상 처리해 '9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 입선부 동점합계 검사
-대 상 관내 입선부중 8~12주 원 차
-검사비 무료
나 입선부 기형아 검사
-대 상 관내 입선부중 20주 원 차
-검사비 무료

◆ **시흥시장애인협회 소식**
 시흥시장애인협회 소속 회원들 양귀교동예극장은 10여명의 자립한 회원들은 장애인 카누를 국민자녀 중추장에게 자녀를 학업에 열의 있는 모범학생 1명을 선발하여 배회(10인)로 장려금을 수여하고 있다.

◆ 시흥시 농촌 지도소

[illegible]

● 제5회 졸업식이 '97년 2월 18일 오전 10시경에 모정초등학교 대문광장에서 거행된다. 이번 졸업생은 모두 12명으로 전부 수학 교과 진학한다.

◆ 모토초등학교 97년도 입학생 예비소집(4월 30일 오전 10시)과 입학식(3월 4일 오전 10시)을 계해 대운동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번엔 입학하는 입학생은 모두 228명으로 5학급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년·소녀가장 교육지원단은 대학에서 학생이 진학할 때 학비 5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속 소외되고 또 가정에서 아이와 관련된 각종 생활에 학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 **보통조식**이라는 급은 4월부터 입학선물 때
앞으로 급식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엔 설식
반 급식은 대학교에 의해 시설비가 전부 국고
에서 지원된 것이며 급식비는 월 2만원선에
정착 될 것으로 보인다.

◆ 도청초등학교는 한때까지 학교교육을 원
모하여 근년부터 일부에 수업을 없애고 전일제
수업을 전학 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청각자료
화장품을 대부분 결비를 금년 1학기 이전에
완료하는 방침이다

연/중/상/일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9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식매노인(65세이상기준)은 14만

나 증상으로서는 치매나 병령이나 비슷하다 하겠다.

문헌 -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보 통관상보

• 뇌와 혈관의 병변으로 속 동맥경의 혈관내출혈 등으로
로 후유증 천자에도 자주 나타난다

· 신경계 질환형 으로 뇌경화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 뇌 혈관에 생기는 변화가 무작위 이는 사실이다. (1989-93)

- 성립: 과묵군에 의해서 뇌 손상이 될 경우

상

계 정판공

무엇을 행기를 참언들을들 호소하는 것일까 무의
한 행동으로 태조면을 가리키 못하거나 국구만
을 다라가나 이리고 다라니고 일어났다. 또한 무
별한 현상도 결국에 어긋나는 말이나 어긋난 행
은 참포로 되어, 공작과 종족할 열화로 같았어
이름대거나 그러거나, 성격으로 이렇한 열화를 하
나 후는 참포로 보는 등등의 일러줄 실행을, 실

한가운데 있어 간방안은 붉은 온 가족적 풍경이
 라는 듯 같이 광활하기 일품이란다.
 멀리 실려져 긴편된 배까지 많은 운송업체가
 나타나며 보름, 해노, 해변강대등도 나타난다. 길
 에는 제임이나 비노처럼 삼삼으로 사할까 되는
 이 작은 도인들의 차려코려로 보이는 나이가들
 들은 주자가 곁에서 쇠뿔을 치는 듯이 부수이자와

한양에서는 봄 치료보다는 약물요법이 더 효과적이고
초기증상에 주로 쓰이는 가타키키탄 경이원. 원장

심도 4

부류, 간류, 결산, 총지, 미지, 다시지, 불 지의
같이 복용하는것이 좋다.

4-인성

한 세대의 의의와 과제로 다루었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개인적 차별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줬고 이는 조계암전으로 증가하였고 나중엔 사안에 따라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였다.

우리 아는 화나님! 자부들은 큰소리로 환타하고
모양과 형식이 하고 소리를 질렀기 일만 언하리
를 맡게하며 너네들은 존중시키고 할일 기뻐하
라! 라는 감지는 바람이 할당할줄 외쳐들 깨달
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종교경망》 (037-691-2264)

- 73 -

- 75 -

매화비전센터 어떻게 이용되나?



매화비전센터가 매화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2006년 2월 19일 착공하여 2007년 1월 31일 준공을 마쳤다. 연면적 1,320평의 넓은 공간을 일체로 구성하고 배치하여 지어진 비전센터는 1년여 공사기간 동안 매화교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도 준비했고, 지금도 비전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걸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매화비전센터는 휴식공간, 교육공간, 문화공간으로 구분된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며, 평일에도 문을 열어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비전센터가 건전한 지역문화를 이루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호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소개한다.

• 휴식공간



커뮤니티룸(1층) - 지역주민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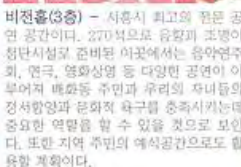


야외휴게실(옥상, 지상) - 지상에 담장을 없고 곳곳에 의자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을 없앴고, 옥상에는 의자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수려한 매화동의 경치를 감상하며 마음과 육체를 쉬게 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 문화공간



비전홀(2층) - 사후시 최고의 원문 공연 공간이다. 270도로 음향과 조명이 청탁시절로 준비된 이곳에서는 음악연주회, 연극, 영화상영 등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져 매화동 주민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주민의 여식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야외공연장(옥상) - 옥상에 개방된 공연공간을 마련하였다.



커뮤니티룸(1층) - 각종 전시회가 가능하며, 무대가 마련되어, 작은 음악회와 시낭송회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 교육공간



매화유치원(1층) - 매화동에 최초로 개설되어 지역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던 매화유치원이 새롭게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원하였다.



다목적실(2층) - 대외노인대학, 영어학교 등이 개설되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으로, 삶과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독서실(1층) -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독서실이 30여 규모로 준비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세미나실(2층) - 각종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 하였다. 이곳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모임이 이루어져 다양한 교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그룹실(2층 11실, 3층 4실) - 주로 교회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며, 매화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의 교육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하는데 이용한다.



중영예배실(3층 3실) - 초등학생을 유년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소년부(5,6학년)로 나누어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들을 위한 교사들의 연구실이 2층에 마련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 본당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가 편리하게 모전 방과 예배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마를 금고(1층) - 금을 보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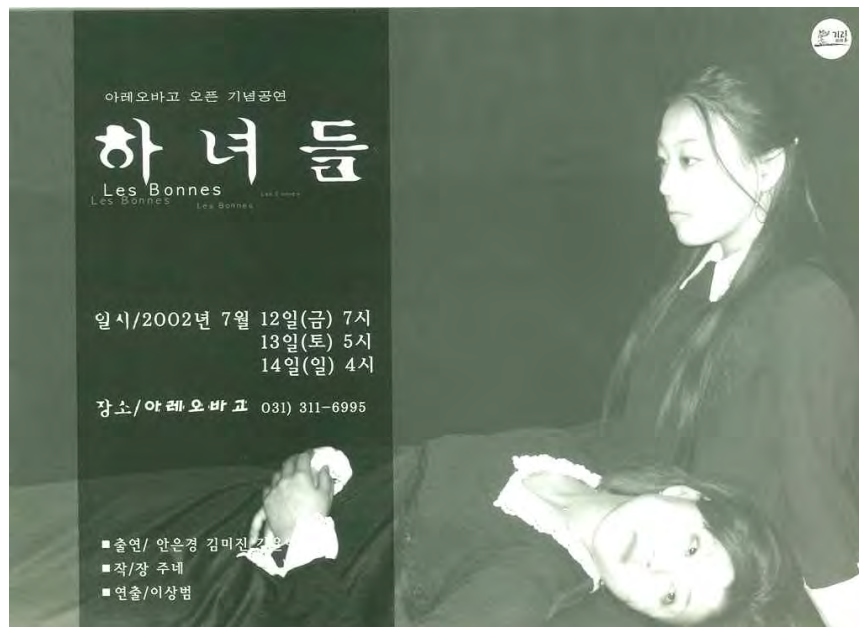
야와 및 지하주차장 - 교회와 인접한 본당의 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다.

"매주 그리스도께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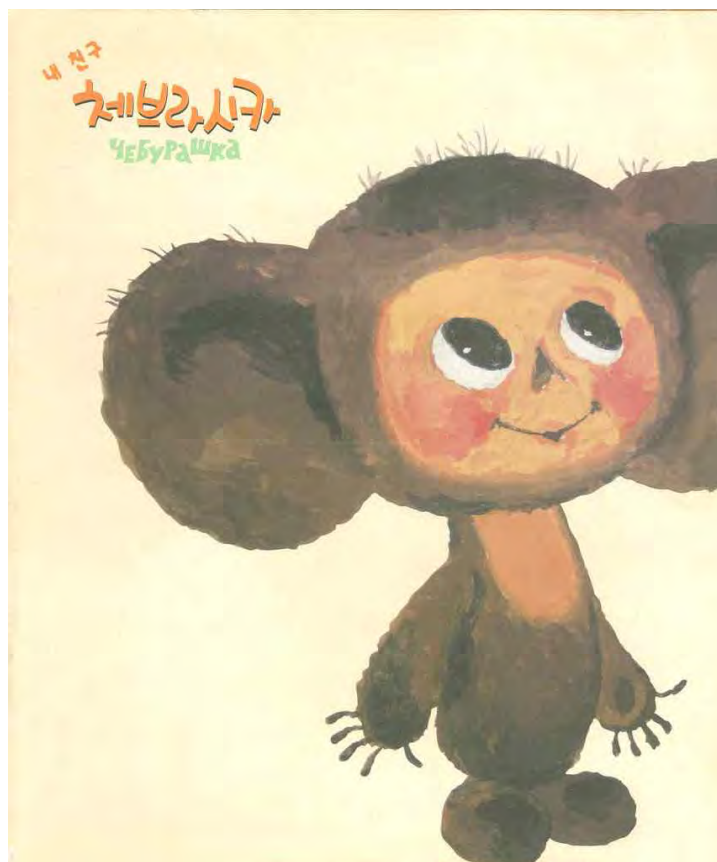
매화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운영되어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오셔서 주님의 배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법	모임시간	예배법	모임시간	예배법	모임시간
주일보 1부	(주일) 오전 2시	영양가교회	(금) 오후 10시	초등부	(주일) 오전 9시 비전3교로
주일보 2부	(주일) 오전 4시	성경영도학교	(화) 오후 4시, (수) 오후 10시	소년부	(주일) 오전 9시 비전3교로
주일보 3부	(주일) 오전 11시	세명교회(매월)	(수) 오후 10시	중등부	(주일) 오전 9시30분 비전3교로
주일보 4부	(주일) 오후 2시30분	세명교회(매월)	(목) 오후 8시	고등부	(주일) 오전 9시30분 비전3교로
주요기도회	(수) 오후 7시30분	회상-인도학교	(수) 저녁예배 후	영전경년부	(토) 오후 2시, 비전3교로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시	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비전3교로	별영성년부	(토) 오후 2시, 비전3교로
송 회	사회복무	유년부	(주일) 오전 9시 비전3교로	남성영성회	(토) 금요일(주일) 오후 8시

【매화신문 제121호】 (4면, 2007.02.11)



【기09】 극단 기린 2002년 아레오바고 오픈 기념 공연
- 하녀들 리플렛



【기17】 극단 기린 2003년 - 내 친구
체브라시카 리플렛



【기15】극단 기린 2004년
- 가족 뮤지컬 달맞이꽃을 찾아서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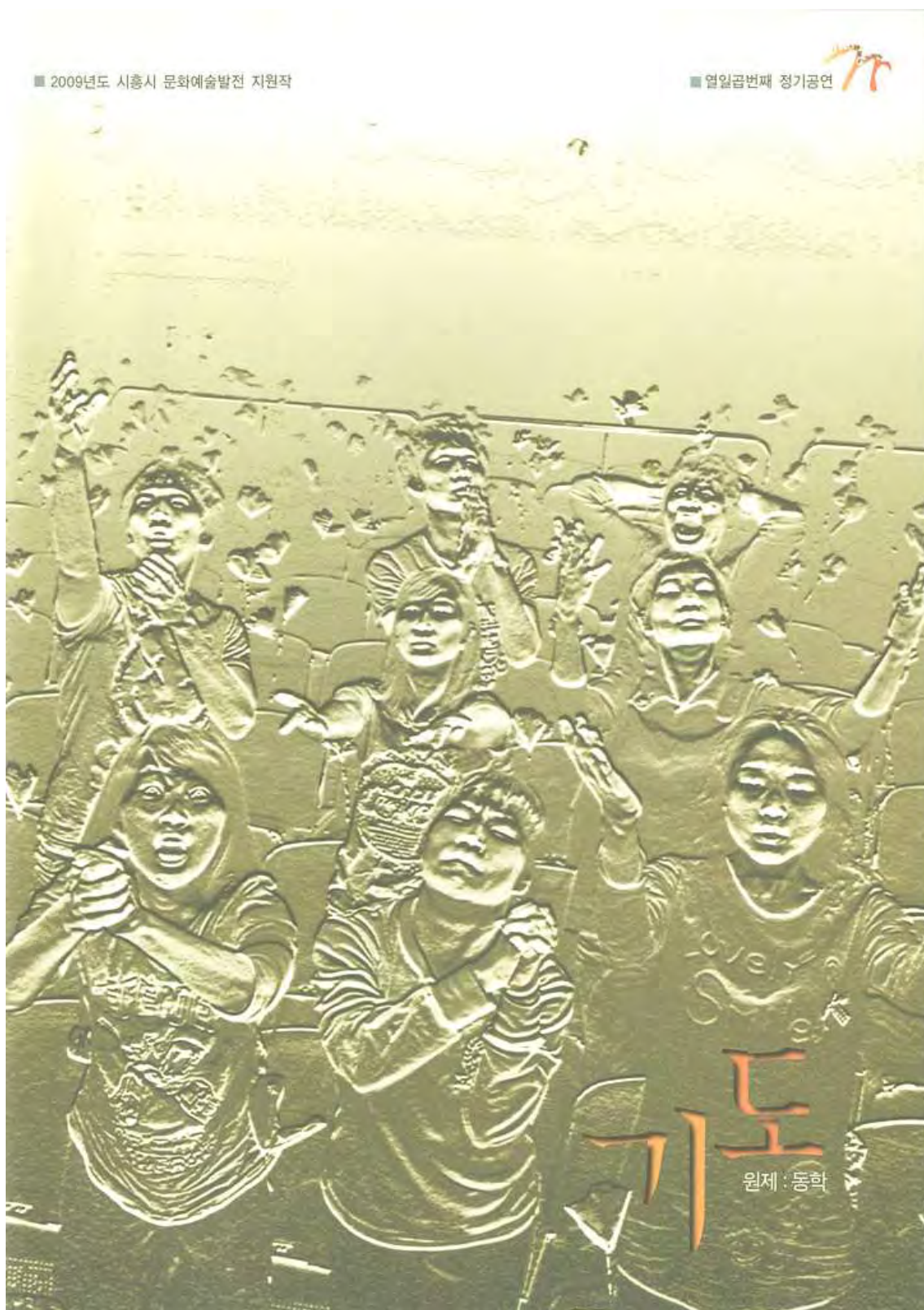
【기07】극단 기린 2006년 제9회 정기공연
- 세븐 센스 리플렛



【기01】 극단 기린 2007년 제11회 정기공연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극, 성(聖) 가족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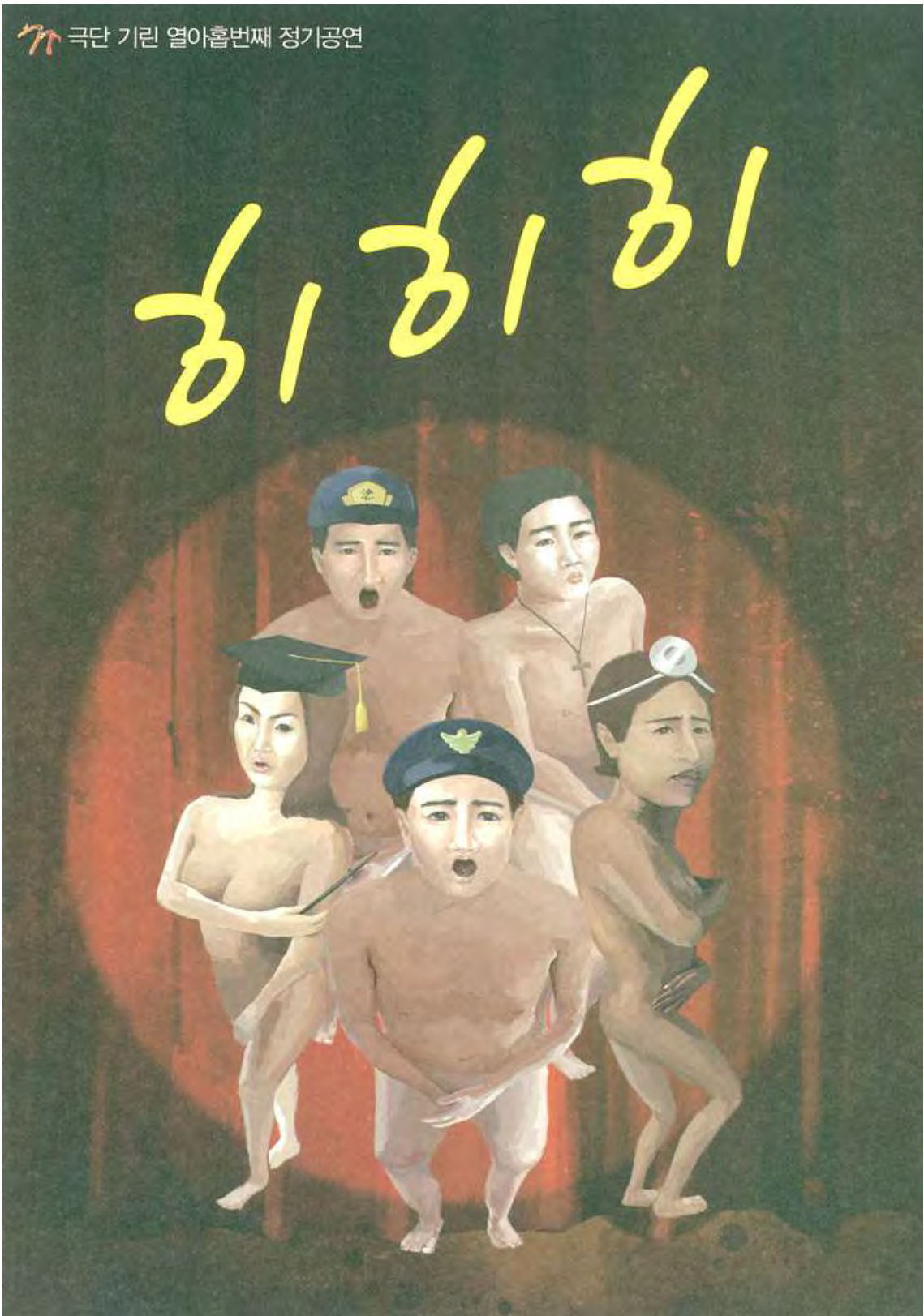
【기18】 극단 기린 2008년
- 소리로 보는 연극, 옴(AUM) 리플렛



【기06】 극단 기린 2009년 제17회 정기공연
- 기도 (원제 : 동학) 리플렛

극단 기린 열아홉번째 정기공연

히히히



【기03】 극단 기린 2010년 제19회 정기공연
- 히히히(원제 : 마술가게)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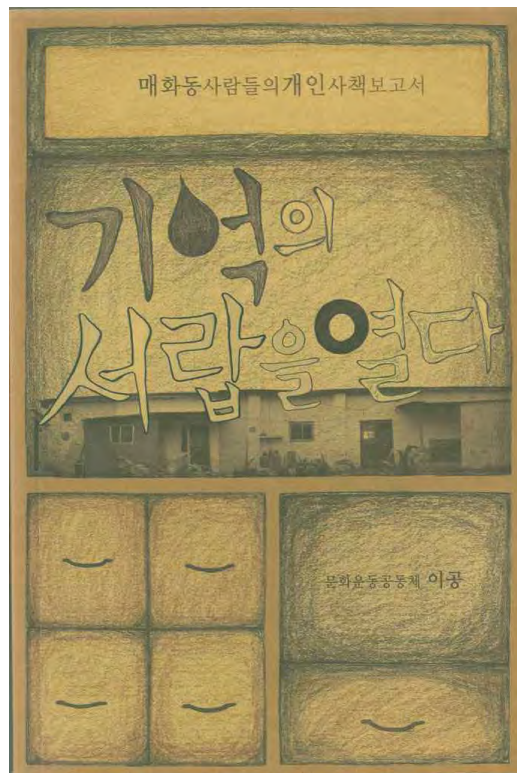
【기14】 극단 기린 2012년 제24회 정기공연
- 황금깃털의 비밀 리플렛



【툼01】 2008 매화동 동네문화놀이터 톼 브로셔



【툼06】 떠들석한 모모들 매거진(2008.12)



【툼04】 기억의 서랍을 열다
(매화동 개인사책 보고서,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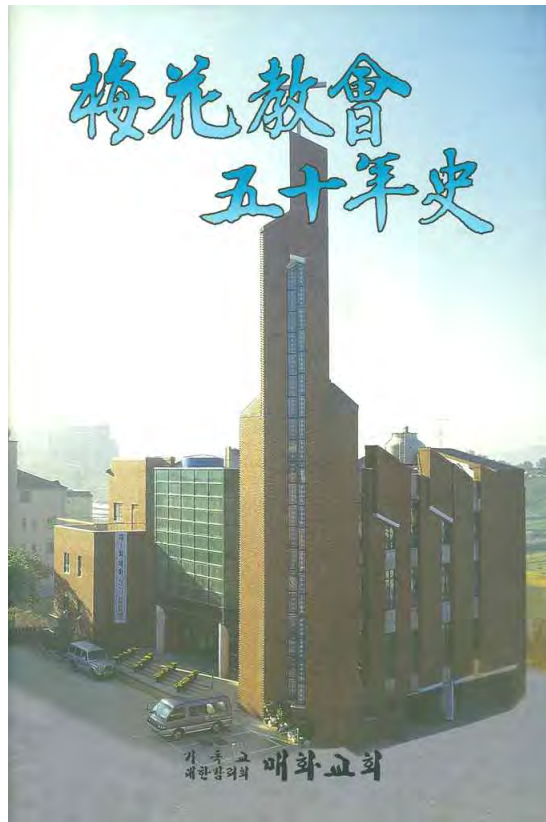
【툼03】 동네문화놀이터 툼
소식지(20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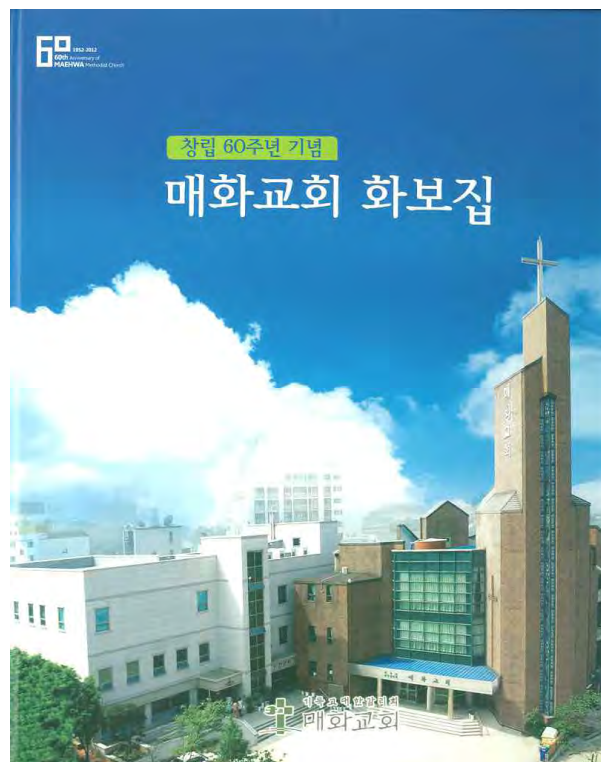
【툼08】 제1회 어린이 동네사진전 기념엽서(2008)



【툼07】 굴러가는 이야기 벵룩시장 리플렛(2009)



【매01】 매화교회 오십년사(2002)



【매02】 매화교회 화보집(2012)

4. 마을 사진

1) 매화동



매채기



매채기



바티골



바티골



셋터말



섬말

2) 도창동



강창리



강창리



도두머리



점말

3) 금이동



도리재



서낭대



거멀



진말

4) 안현동



가대말



길마재



양지편



장락동

4) 물왕동



얼미

5. 현 장 조 사 일 지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3.09.15(일)	• 월미마을 답사 및 사진촬영	
2013.09.23(월)	• 매화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 사무장 총무 면담, 조사사업 협조요청 • 극단 기린 이상범 대표 면담	 
2013.09.25(수)	• 안현동 길마재 · 장락골 답사 및 사진촬영	 
2013.09.27(금)	• 호조벌 축제 취재 • 주민 협조 요청 및 인터뷰 일정 조율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3.09.27(금)	• 호조별 축제 취재 • 주민 협조 요청 및 인터뷰 일정 조율	
2013.09.28(토)	•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취재 - 포천종합운동장 - 월미두레풍물놀이 참가	
2013.10.11(금)	• 매화동 · 도창동 · 금이동 - 행정구역에 따른 자연마을 답사 - 도리재 · 거멸 · 점말 · 서낭대 진말	 
	• 강상옥 노인회장, 김영예 · 권복순 인터뷰 - 월미마을 노인정 - 마을 유래와 생활, 문화 구술	
2013.10.14(월)	• 도창동 · 금이동 노인정 방문 • 강창리 · 도두머리 마을 답사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3.10.14(월)	• 도창동 · 금이동 노인정 방문 • 강창리 · 도두머리 마을 답사	
2012.10.16(수)	• 금이동 최진(51) 통장 인터뷰 - 매화동 주민자치센터	
2013.10.19(토)	• 양지편 · 길마재 답사 및 사진촬영	 
2012.10.21(월)	• 도리재 김수경(47년생) 인터뷰 - 시흥문화원 • 도리재 마을 답사 - 간이상수도 물탱크, 상여독 찾기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3.10.24(목)	- 매화동 강춘영(50) 통장 인터뷰 - 매화동 주민자치센터	
2013.10.28(월)	거멸 방종현(62), 노인회장 이보영(75) 인터뷰	 
2013.10.30(수)	- 도리재 신세철(82), 신덕철(68) 인터뷰 - 길마재 이기선, 김정환, 김현수 인터뷰 - 길마재 마을회관 - 마을 유래, 지형 변화, 농촌문화 김치인 묘, 팽나무 이야기	 
2013.10.31(목)	- 도리재 우물터, 공덕비 등 답사 - 거멸, 도창저수지 주변 답사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3.10.31(목)	•도리재 우물터, 공덕비 등 답사 •거멸, 도창저수지 주변 답사	
	•길마재 김치인 묘, 팽나무, 대동우물 답사 •서강운(104, 최장수 어르신) 인터뷰	
2013.11.01(금)	•매화동 매채기 노인정 방문 - 어르신들에게 마을 자연지명의 유래와 구역의 나뉘에 대해 청취	
2013.11.04(월)	•함윤식(84), 김선모(83) 인터뷰	 
2013.11.05(화)	• 길마재 · 양지편 답사 - 주민 구술 채록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3.11.05(화)	● 길마재 · 양지편 답사 - 주민 구술 채록	
2013.11.06(수)	● 매채기 윤영진(67) 총무 인터뷰 - 지명유래 이야기 - 도창초등학교 60년사 관련 이야기	
	● 길마재 김금옥 인터뷰 - 두레, 대보름, 6·25, 새마을운동 ● 장락골 정옥련 인터뷰	
2013.11.07(목)	● 도두머리 마을 답사 ● 백승직(35년생), 백승학(72) 인터뷰 - 도두머리 지명유래 - 수원백씨 이야기	
		
2013.11.11(월)	● 장락골 최경옥 인터뷰 - 호조벌, 학교와 마을사업, 상여독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3.11.13(수)	• 매화동의 오래된 가옥 탐문 • 안성옥(85), 조휘권(55), 김옥분(78) 인터뷰 - 마을 변천사	
2013.11.15(금)	• 함병혁(31년생), 함우식(23년생) 함도식(32년생) 인터뷰 - 샛터말 노인정 - 강릉함씨 이주사	
2013.11.16(토)	• 양지편 이강한 인터뷰 - 지명유래, 대동우물, 마을이야기	
2013.11.17(일)	• 양지정 사두 김문근, 부사두 이호재, 고문 이재웅 인터뷰 - 양지정 유래, 국궁 이야기	
2013.11.18(월)	• 금강 2차 아파트 노인정 방문 - 어르신들에게 매화동 정착 이유와 생활 이야기 청취	
2013.11.20(수)	• 매화동 지역 원로 이창우 인터뷰 - 매화교회 이야기 등	
2013.11.21(목)	• 도창교회 김주석 목사 인터뷰 - 50대 토박이의 매화동 추억담	
2013.11.22(금)	• 이상범, 김재문 인터뷰 - 매화신문 발간, 지역활동가	